10월30일 Market Index
코스피 5730.74 (-206.92)
코스닥 724.38 (-28.38)
금리(국고채 3년) 3.715 (-0.051)
환율(원-달러) 1334.30 (-2.5)

metro 경제

하나금융그룹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1월 2일 월요일

m-커버스토리

AI 전력수요 급증 '공급망 시험대'

정부, K-에너지 점검

용인·평택, 서남·충청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중
11차 전기본 원점 재검토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한민국 에너지 인프라가 기로에 섰다. 정부가 향후 15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에 돌입한 가운데, '대체불가 K-에너지' 확보를 위한 쟁점과 정책적 과제를 긴급 점검한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AIDC) 3대 첨단 분야에 민관 합동 1400조원을 투입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용인·평택 중심의 수도권 메모리 거점 외에도 서남권(제2 반도체 생산거점), 충청권(HBM 첨단 패키징), 영남권(전력반도체) 등 전국 각지에 거대한 산업단지 조성이 예고된 상태다.

특히 전남 광주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팹(FAB) 4기와 협력사가 모두 가동되면 대형 원전 6기 분량인 최대 6.3GW(기가와트)의 전력이 소모된다.

정부와 한전은 신장성·신광주 345㎸ 송전망에서 산단까지 신규 공급선로를 놓아 2029년 1단계로 3GW를 우선 확보하고, 향후 6GW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상시 가동되는 하이퍼스케일 AI데이터센터의 초대형 상시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전력망에는 과거와 차원이 다른 부하가 밀려들고 있다.

전력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당초 수립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원점부터 재검토 수순을 밟고 있다. 12차 전기본 총괄위원회는 2040년 최대전력수요 전망치를 당초 131.8~138.2GW에서 158.4~165GW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불과 몇 달 새 원전 19기에 맞먹는 27GW 가량의 수요가 추가된 셈이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투자 계획이 구체화된 36.8GW를 우선 반영하고 나머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정치권과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AIDC 등의 전력 수요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계된 '허수 수요'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도 과대·과소 추계를 걸러내는 작업에 착수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기업들의 투자 계획을 반영하려 했으나 막상 진행해보니 수요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며 "막연한 수요를 제12차 전기본에 모두 담기보다 실제 진행 상황과 현실적인 수요를 엄밀히 따져 전력 전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3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화필리조선소 전경. /한화그룹

한화필리조선소, 美 해군함정 첫 수주

2.7억 弗 규모 중형 상륙함 1척
인도·태평양 원정작전용 상륙함

한화가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지 약 1년10개월 만에 처음으로 미 해군 함정 건조 사업을 따냈다. 상선 위주였던 필리조선소가 군함도 지을 수 있는 조선소로 인정받으면서 한화의 미국 조선·방산 시장 공략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화디펜스USA는 29일(현지시간) 미 해군 선박건조관리업체(VCM)인 TOTE Services와 중형 상륙함(LSM·Medium Landing Ship) 1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약 2억 6900만달러(약 3575억원)다. 건조는 한화필리조선소가 맡는다.

LSM은 미 해군이 인도·태평양 등 원거리 분쟁지역 연안에서 분산작전을 펼치기 위해 도입하는 원정작전용 상륙함이다. 해병대 병력과 장비, 보급품을 연안 지역으로 수송·전개하는 임무를 맡는다. 길이 100m, 폭 16m, 경하중량 약 2687톤(t)으로, 항속거리는 약 7400㎞다.

이번 수주는 한화필리조선소가 상선을 넘어 미 해군 함정까지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화필리조선소는 올해 들어 미국 방산 분야로 보폭을 꾸준히 넓혀 왔다. 지난 3월 한화디펜스USA와 함께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NGLS) 개념설계 사업에 참여했고 7월에는 미국 '골든돔' 미사일방어체계와 연계된 해상 미사일 시험 계측선(MRIV) 건조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번 LSM 수주로 함정 설계에 이어 건조까지 미 해군 사업 전반에 발을 들이게 됐다.

마이클 쿨터 한화디펜스USA 대표는 "2024년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이후 한화는 미 해군 등 연방정부 고객을 위한 선박 건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력과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해 왔다"며 "일정과 예산에 맞춰 함정을 인도할 수 있도록 TOTE Services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바이낸스 코인 탈취… 北-美 관계 악화일로

비트코인 하루새 5000 弗 급락
핫 월렛서 63억 弗 가상자산 유출
거래소 역대 해킹사고중 최대규모

북한 해커 그룹의 공격으로 미국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대규모 가상자산 탈취가 발생하며 가상자산 가격 전반이 하락했다. 미 연준의 매파정 통화정책과 기술주의 약세까지 겹치며 가상자산 가격을 끌어내렸다. 일각선 이번 해킹의 여파로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1일 가상자산 시황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이날 정오께 1BTC당 7만7610달러에 거래됐다. 24시간 전과 비교해 약 0.04% 상승한 가격으로, 지난 한 달간 BTC당 8만달러 선에서 횡보세를 지속했던 비트코인은 지난달 30일 새벽 5000달러 이상 급락한 이후 좀처럼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주요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 가격도 약세다. 시총 2위 이더리움(ETH)은 지난 일주일간 4.08% 내렸고, 3위 바이낸스(BNB)는 5.59% 내렸다. 같은 기간 시총 4위 리플(XRP)도 4.53% 내렸다. 주요 알트코인이 일주일 전과 비교해 5~10% 하락을 기록한 가운데, 탈중앙화거래소 기반 가상자산인 하이퍼리퀴드(HYPE)만 예외적으로 14.84% 올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가상자산 '해킹우려' 확산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약세인 것은 중앙화거래소(CEX)의 해킹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앞서 지난 10월 29일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는 약 63억달러 규모의 가상자산이 거래소 핫월렛(거래소 출금계좌)에서 유출됐다고 밝혔다. 역대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사고 중 최대 규모다. 유출된 자금 중 30억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은 동결 및 회수됐지만, 나머지 자금은 기타 가상자산으로 전환되거나 분산 이체를 통해 세탁됐다.

미국 연방수사국(FBI)는 이번 해킹 사고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다. 업계에서는 사건 발생 이후 북한을 유력한 배후로 지목했는데, FBI가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이다. FBI는 북한 측이 탈취한 가상화폐를 탈중앙화거래소(DEX)를 비롯한 탈중앙화금융(DeFi)을 통해 자금세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해킹 사고는 거래소 '핫월렛'에서 발생했다. 핫월렛은 사용자가 거래소에 위탁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계좌로, 고객의 입출금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묶어두는 일종의 '출금 대기 금고'에 해당한다. 핫월렛에는 막대한 자금이 보관되는 만큼 엄격한 보안이 적용됐는데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격에 대규모 유출이 발생한 만큼 고객 우려도 커졌다.

바이낸스는 이번 유출에서 발생한 피해를 100%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대규모 유출 사고가 계속되면 거래소의 재정 상황이 악화해 출금 중지 및 거래소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매파적 금리전망·빅테크 약세… 하방 압력 지속

미국 내 금리전망 변화도 가상자산의 가격이 하락한 요인이다. 〈2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

韓 누적수출 9300억 弗 '역대급'

산업부, 10월 수출입동향
10월수출 전년비 94% 급증
세계 네번째 연간 1조 弗 눈앞

대한민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1~10월 누적 9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대망의 '연수출 1조 달러' 고지 등극을 코앞에 두고 있다. AI 인프라 투자 훈풍을 탄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견인하며 역대급 실적 행진을 잇는다.

산업통상부는 1일 '2026년 10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고, 10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93.7% 급증한 1152억 8000만 달러(약 154조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1211억 달러)에 이은 역대 월간 수출 2위의 기록으로, 2개월 연속 1100억 달러 선을 가볍게 넘겼다. 무역수지 역시 425억 달러 흑자로 2개월 연속 400억 달러를 웃돌았다.

특히 올해 1~10월 누적 수출액은 9300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9000억 달러 선을 돌파했다.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까지 남은 금액은 700억 달러에 불과해, 오는 11월 중 무난히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확실시된다.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할 경우 한국은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이 기록을 세운 국가가 된다.

수출 호조의 중심에는 단연 반도체(564억 4000만 달러)가 있었다. 10월 전체 수출액의 절반에 육박하는 물량이 반도체에서 나왔으며, 전년 동월 대비 259.4% 폭증했다. AI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빅테크들의 설비 투자가 고단가·고물량 유지로 직결된 결과다.

지역별로는 대중국 수출(+133.6%)과 대미국 수출(+185.8%)이 강력한 쌍끌이 호조세를 보이며 9대 주요 지역 중 7개 지역에서 수출이 늘었다.

/세종=한용수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이 대통령, 내일 '내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 국회 협조 요청할 듯 /사진 뉴시스

▲국힘, 與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에 "탄핵 간 보겠다는 속셈…사법부 길들이기"

▲10월 중 대남방송 예고했던 北 '잠잠'…"실제 방송보다 대남 압박용 공세"

▲직장인 71% "포괄임금 금지해야"…30% "수당 온전히 못 받아"

▲국민연금 수급자 800만명 돌파…66%는 월 60만원도 못 받아

▲중간소득층 40% 벌이 줄었다…8명 중 1명은 소득 '반토막'

韓, 성장률·수출 큰 폭 개선… 금리 막판 변수 '소비자물가'

3분기 성장률 예상치 웃돌아
10월 수출 전년동기比 93.7%↑
한은, 예고했던 성장지표 확인
물가흐름·금융안정 상황 점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3분기 성장률이 한국은행 예상을 웃돈 데 이어 10월 수출도 큰 폭으로 늘었다. 신현송 한은 총재가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 당시 추가 확인을 예고했던 성장지표가 나온 가운데 오는 3일 발표되는 10월 소비자물가가 다음 금리 판단의 주요 시험대로 떠올랐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1152억 8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93.7% 증가했다. 추석 연휴 시점 이동으로 조업일수가 지난해 20일에서 올해 22일로 늘었지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52억4000만달러로 76.1%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259.4%,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액은 34% 늘었다.

한은은 지난달 22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7·8월 두 차례 인상의 파급 효과와 중동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신 총재는 당시 성장·물가의 상방 위험이 8월 전망 때보다 커졌다고 평가하면서도 3분기 국내총생산(GDP)과 10월 물가 등 추가 자료를 통해 "좀 더 확인해도 늦지 않다고 보았다"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공개된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1.0%로, 8월 전망 때 예상한 3분기 성장률 0.3%를 웃돌았다. 민간소비가 감소했지만 투자와 정부소비가 늘면서 내수는 성장률을 0.9%포인트 끌어올렸다.

다만 가계 소비의 회복 강도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3분기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2% 줄었다. 한은은 자동차 파업에 따른 인도 지연과 주식 거래 감소에 따른 금융서비스 소비 축소가 영향을 미쳤으며, 두 요인이 없었다면 0.4%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설명회에서 "지금까지 민간 소비 개선세가 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가계부채와 고령화도 소비 회복의 구조적 제약으로 짚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9월 산업활동에서는 전월 대비 생산이 3.0%, 소매판매가 3.6% 증가해 반등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자동차 생산·판매 회복과 함께 전월의 일시적 감소 요인이 완화된 영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물가 역시 전체 상승률의 등락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9% 올라 8월의 3.1%보다 상승률이 낮아졌다. 다만 지난해 8월 통신요금 감면으로 올해 8월 상승률이 높아졌던 기저효과가 9월에 사라진 영향이 컸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달 2일 브리핑에서 이를 감안하면 9월 물가상승 압력이 8월보다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9월 식료품·에너지 제외 근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2.8%였다. 개인서비스와 공업제품 가격도 각각 3.5%, 4.2% 올랐다. 다만 근원물가는 전월 대비로는 0.1% 하락했다. 연간 상승률과 단기 움직임이 다른 만큼 물가압력의 지속성을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10월 수출입 자료에서도 비용 부담은 확인됐다. 원유 수입물량은 전년 동월보다 6.3% 줄었지만 달러 표시 수입단가가 62.0% 오르면서 수입금액은 51.9% 증가했다. 이런 원유 매입비용 부담이 국내 물가에 얼마나 전이될지도 변수다.

물가의 상·하방 요인도 공존한다. 한은은 환율 하락의 물가 안정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유가 반등과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전이, 수요 측 압력을 경계하고 있다. 한편 10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7%로 전월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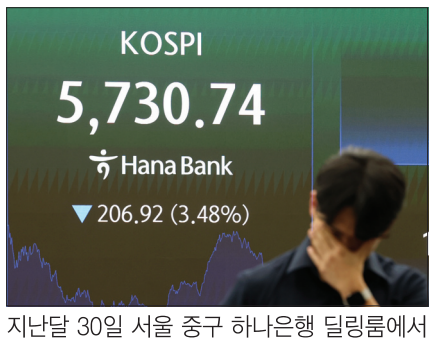
한은이 주목하는 것은 물가압력이 내년까지 얼마나 이어질지다. 지난달 통화정책방향에서는 내년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8월 전망치인 2.3%, 2.5%를 각각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물가·경기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을 함께 점검해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소비 회복 속도와 앞선 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 대외변수도 고려할 대상이다. 한은은 오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흔들리는 코스피… "회복 제한" vs "저평가 영역"

'AI 버블' 공포 영향… 한 달새 16%↓
기업 수익성 지속·외국인 수급 관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주가가 하루하루 불안한 흐름이라 지금 들어가기 무서워요."

"용기 내서 매수했는데 인공지능(AI)발 신용(부채 리스크) 우려가 현실이 되면 어떡하죠?"

개미들이 '인공지능(AI) 버블' 공포에 휩싸였다. 반도체 기업과 빅테크들의 화려한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주가가 잠시 오르다가 AI 버블론이 불거질 때마다 공포에 질려 하락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의 반등 여부가 미국 AI 기업과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성 지속 여부에 달려 있다고 분석한다. 이는 외국인 수급이 뒷받침된다는 게 전제다.

◆ 반도체 이익 지속성 주목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피 지수는 16.19% 하락했다. 월간 기준 역대 일곱 번째로 큰 하락률이다. 시가총액의 5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부진 때문이다. 지난달 각각 16.20%, 20.15% 하락했다. 3분기 사상 최고 실적이 무색할 정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기간 107조4405억원, 83조3338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AI 버블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다. 우려하는 핵심은 AI가 미래 산업 지형을 흔들 '게임 체인저'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아니다. AI 산업이 현재 투자 규모와 차입 부담을 정당화할 만큼 빠르게,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산지브 라나 CLSA증권 코리아 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은 수요와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수익 변동성이 컸던 과거를 고려해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롭 리 아몬트파트너스 매니징 파트너는 블룸버그에 "중요한 것은 이익의 규모보다 지속성"이라며 시장의 관심이 한 분기의 실적보다 2027년과 2028년 전망으로 옮겨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메모리 업체들은 기우라고 평가한다. 그 근거로 장기 공급계약을 내세우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주요 고객 14곳과 LTA를 체결했으며, 확보한 계약 물량은 2027~2028년 전체 생산 능력의 50% 이상이다. 선단 공정의 기술 난도와 신규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2030년까지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회사의 전망이다. 삼성전자도 장기계약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KB증권에 따르면 중국 주요 클라우드 기업들은 삼성전자 등에 10년 장기계약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10년 초장기 공급계약은 메모리 산업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장기 이익 가시성을 높이는 구조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최근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특별강연에서 "AI 혁명은 제가 볼 때 많이 왔어도 10~20% 정도 온 것 같다"며 제한적인 메모리 공급 능력과 향후 수요 확대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개미들은 장기 계약이 메모리 산업의 고질적인 경기 변동성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확인하려는 분위기다. 10월 들어 국내 증시 거래 대금은 5월 말 고점보다 약 70% 감소했다.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5월 평균 130조4400억원에서 지난달 94조8773억원으로 약 35조원(27%) 줄었다. 주가가 떨어질 때 외국인의 '팔자'(18조6756억원) 매물을 받아줄 국내 투자자 자금이 줄어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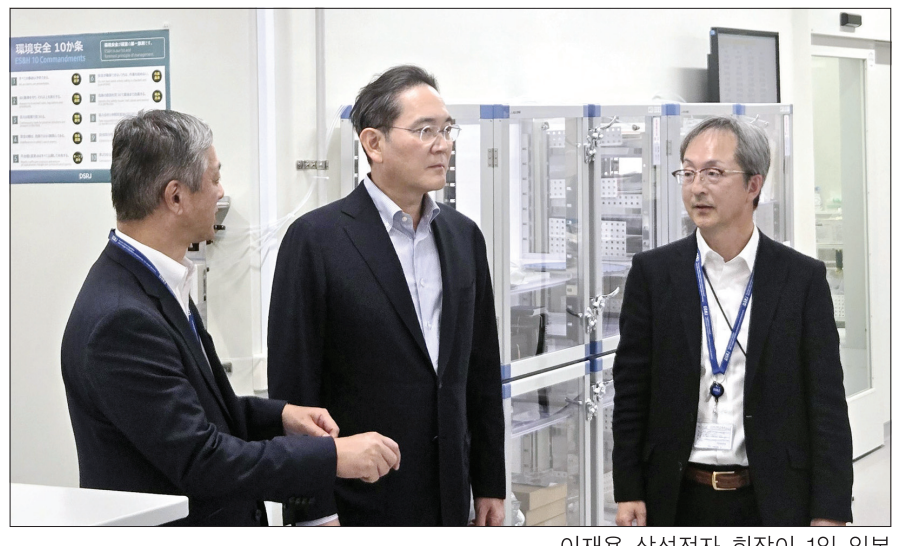
◆코스피 신중 vs 아직 싸다

코스피가 AI 거품 우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

JP모건은 저가 매수세가 약해지고 자사주 매입 효과도 줄어 이번 AI주 조정이 앞선 하락 때처럼 빠르게 회복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한국·대만 증시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은 유지했다. AI 하드웨어 공급 부족이 2028년까지 이어져 메모리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가 견조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UBS 역시 최근 반도체주 하락을 AI 투자 사이클의 붕괴라기보다 지나치게 높아진 기대를 낮추는 과정으로 평가했다. 골드만삭스는 코스피 12개월 목표치를 1만2000에서 9000으로 25% 낮췄다. 코스피가 올 6월 고점 대비 35% 넘게 떨어지자 기업 가치를 더 보수적으로 따지기로 한 것이다.

반면, 노무라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AI 투자 우려가 지나치다고 진단했다. 노무라증권은 코스피 목표치를 1만~1만1000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는 각각 67만원, 470만원을 제시했다. 한화투자증권은 내년 코스피가 최대 93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코스피 지수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가치 평가)이 과거 금융위기 수준을 하회하는 역사적 저평가 영역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日 반도체 연구거점 점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일 일본 요코하마에 위치한 삼성전자 첨단 반도체 패키징 연구거점(Advanced Package Lab·APL)에서 카와히라 히로이치 삼성전자 DS 리서치 재팬 연구소장(부사장, 이 회장 왼쪽), 카리야 다카시 APL 랩장(상무) 등과 함께 패키징 기술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삼성전자

해킹 배후 北 지목… 트럼프 방침 변화 예상

》1면 '바이낸스 코인 탈취…'서 계속

앞서 미 연준은 지난달 28일 개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75~4.00%로 동결했지만,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스탠스를 유지했다. 가상자산은 유동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만큼 금리 상승기에 기격이 하락하며, 금리 인하기에는 가격이 상승하는 특성이 있다.

최근 주요 테크주의 약세도 투심 악화에 한몫했다. 가상자산은 주요 빅테크 주식과 높은 동조화성(커플링) 성향을 보인다. 최근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의 수익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기술주 전반이 약세를 보이는 만큼, 가상자산 가격 또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북 관계 악화 가능성도

한편, 이번 해킹의 배후로 북한이 지목되면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냉랭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수 차례 밝혀왔는데, 이번 범죄에 북한이 연루된 만큼 트럼프의 방침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는 관측이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30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호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대면할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대체로 어두워졌다"라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번 해킹이 북한 소행이라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은 모른다. 사안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We are looking into it). 다만 바이낸스는 피해 금액을 되찾을 것이라 하더라"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기자회견이 FBI 수사결과 발표 이전에 진행된 만큼, 트럼프의 방침 변화에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안승진기자 asj231@

원전·재생·용수 꼬인 방정식… 해법은 '조화와 선제 투자'

m-커버스토리

K-에너지의 과제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가 지구촌을 강타하고 첨단산업의 '전력 블랙홀' 현상이 심화하면서,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복합 난제에 직면했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둘러싼 에너지믹스 딜레마부터 산단 가동의 숨은 뇌관인 '용수'와 '송전망' 문제까지, K-에너지가 돌파해야 할 현안은 첩첩산중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후보지인 광주 군공항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충북 청주시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멈췄던 원전의 시계, 다시 돈다… 과제는 수용성과 입법

네팔 대홍수 등 기후변화의 경고음이 울리는 가운데, 무탄소 전원 확대 필요성이 맞물리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원전의 시계가 다시 돌고 있다.

12차 전기본, 신규원전 역할 공론화
탄소중립·첨단산업 수요 동시 대응
원전·재생에너지 최적 조합 관건
석탄발전 폐지 따른 공급 공백 숙제

지난해 11차 전기본에서 신규 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원자로) 건설 방향이 잡힌 데 이어, 12차 전기본에서는 첨단산업 수요 폭증을 감당하기 위해 추가 신규 원전 건설 여부까지 공론화 테이블에 올랐다.

정부가 출범시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은재호 위원장을 비롯한 중립 인사 9명으로 구성돼 오는 12월 권고안 도출을 목표로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에 나선다. 이번 공론화는 원전을 직접 몇 기 지을지 묻는 방식이 아니라, 탄소중립과 AI 전력 수요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원전이 맡을 '역할'을 사회적 합의로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핵연료 처분 비용 재산정 등으로 원전 발전단가(kWh당 65원 → 79원)가 다소 올랐고 부지 확보 제약이 여전하지만, 폭증하는 수요 속에서 무탄소 기저부하로서 원전의 필요성은 다시 부각되는 모양새다. 다만,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 이후 본격적인 처분시설 부지 선정 및 지역 수용성 확보 등 후속 실행 과정에서 주민 반발이라는 암초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 원전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 계통 병목과 믹스 딜레마

원전 공론화 의제가 '원전의 역할'에만 한정돼 있어 본질적인 한계를 지닌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원 구성이라는 거대한 퍼즐을 완성하려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속도 ▲LNG 등 과도기 전원의 활용 방안 ▲2040년 석탄발전 폐지 이후의 공백 메우기 등 산적한 과제들이 함께 풀려야 한다.

기후부에 따르면 올해 전력부문 글로벌 투자 규모는 1조6000억 달러에 달하며, 이 가운데 재생에너지가 42%(6650억 달러)를 차지한다. 지난 10년간 글로벌 투자는 태양광이 115%, 풍력이 60% 급증하는 등 무탄소 경제의 축이 이미 재생에너지로 가파르게 이동 중이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이분법적으로 대립시킬 것이 아니라, AI 시대의 대규모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두 전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에너지믹스' 정교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정부가 확정한 2018년 순배출량 대비 53~61% 감축이라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 기조를 동시에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석탄발전 폐지 공백을 채울 대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아울러 전원 믹스 설계 못지않게 물리적·제도적 하부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동해안의 원전 전력이나 호남의 재생에너지 전력이 수도권으로 제때 공급되지 못하는 '송전선로 병목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 수요를 지방으로 유도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과 함께, 전력망 접속 기준인 '그리드코드(Grid Code)' 정비, 전력계통영향평가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계통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공론화 이후 기후부와 총괄위원회가 남은 퍼즐 조각들을 얼마나 정밀하게 맞추느냐가 12차 전기본 성공의 열쇠다.

◆ 산단 성공의 숨은 변수, 하루 100만 톤 '용수' 확보 비상

전력망 못지않게 시급하고 까다로운 과제는 용수 확보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팹 4기가 모두 가동되면 하루 65만 톤 이상의 막대한 산업용수가 필요하다. 정부는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댐 수계를 정교하게 조정하고, 첨단 하수 재이용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하루 100만 톤 이상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한반도를 강타한 극한 가뭄을 기억하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은 실제 비상 가뭄 상황에서도 이 계획이 안정적으로 버텨낼 수 있을지 깊은 의구심을 품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상수'가 된 만큼, 하수 재이용률 제고에 그치지 않고 해수담수화 인프라 구축이나 유역 간 수계 연계 등 다중 방어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용수 인프라 역시 산단 완공 시점에 맞춰 짓는 것이 아니라, 가뭄 시나리오별 비상 공급 계획과 연계 건설이 필요하다.

송전망 병목에 전력 공급 차질 우려
반도체 산단 대규모 용수 확보 비상
극한 가뭄 대비 다중 공급망 절실
인프라 선제 투자·범정부 공조 시급

◆ 부처 간 칸막이 깨고 범정부 실행력 높여야

이 복잡한 난제를 풀어야 할 주체는 전력·탄소중립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메가프로젝트를 이끄는 산업통상부, 실제 물리적 인프라를 건설·운영하는 한국전력 등으로 분산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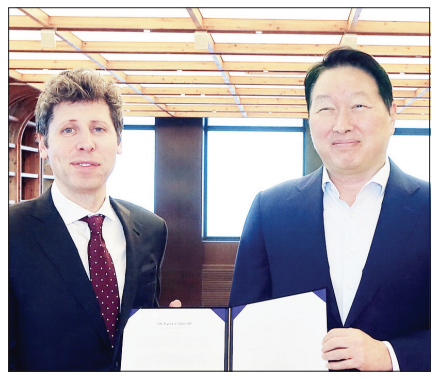
지금처럼 산업부는 대규모 산단을 유치하고, 한전은 주민 수용성과 누적 적자에 부딪혀 송전선로 건설에 차질을 빚고, 기후부는 탄소중립 목표를 따로 관리하는 분절적 구조로는 메가프로젝트의 숨 가쁜 속도를 맞추기 어렵다. 전력수요 폭증과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상수 속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믹스, 송전망·용수 인프라의 과감한 선제 투자, 그리고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유기적 협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삼성·SK, 샘 올트먼과 연쇄 회동… AI 동맹 강화

삼성, 사장단 50여명과 AI 전략 논의
경영진 AX 교육으로 전사 혁신 가속
최태원, 올트먼과 오찬서 협력 모색
HBM·데이터센터 등 협력 확대 주목

삼성과 SK가 지난달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잇따라 회동하며 인공지능(AI) 인프라 협력 확대에 나섰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오른쪽)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10월 1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AI 데이터센터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K

삼성은 주요 관계사와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AI 시대의 경영 전략을 모색하고 전사적 AI 전환(AX)에 속도를 높일 방안을 모색했으며 SK는 최태원 회장은 직접 오찬 회동을 진행하며 AI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달 31일 경기 용인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삼성전자 등 주요 관계사 사장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트먼 CEO를 초청해 사장단 간담회를 열었다. 'AI가 바꿀 다음 10년, 기업의 선택'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AI 기술 발전 방향과 활용 가능성, 이에 따른 신규 시장 및 사업 기회를 논의했다. AI가 기업의 의사결정과 조직 운영에 미칠 영향과 경영진이 갖춰야 할 역량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삼성은 이번 간담회를 전사적 AX 추진을 위한 사장단 교육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AI 시대 경쟁력이 경영진의 판단력과 실행력에서 비롯된다는 인식 아래 최고경영진부터 AI를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이날 사장단은 올트먼 CEO와의 간담회에 앞서 생성형 AI 실습 교육도 받았다. 지난 6월 첫 AI 집중교육 이후 4개월 만에 마련된 추가 교육으로, 흩어진 경영자료를 AI로 정리해 개인별 '지식저장소'를 구축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실습이 진행됐다.

삼성은 지난 6월부터 연구개발과 생산, 마케팅, 지원 업무 등 전 분야에 AI를 도입하는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사장단 교육을 시작으로 약 2300명의 임원 교육을 진행했으며, 일반 직원까지 대상을 확대해 2027년 2월까지 전 임직원 교육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관계사별 AI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의 업무 활용도 확대하고 있다.

양사의 협력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오픈AI는 지난해 10월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삼성SDS는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기업용 AI 서비스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도 해상 부유식 데이터센터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역시 올해 7월 미국 오픈AI 본사를 방문하는 등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이날 서울 모처에서 올트먼 CEO와 오찬을 함께했다.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 주요 임원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양사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공급과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기존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 회장과 올트먼 CEO는 지난 7월에도 회동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전력망 확충이 반도체·AI 산업 경쟁력 좌우

›› 1면 'AI 전력수요… '서 계속

정부, 전력 인프라에 1조9000억 투입
송전망 적기 구축·주민 수용성 관건

정부는 당초 연내 12차 전기본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다룰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최종 확정 시점은 연말 이후로 연기됐다.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순차 폐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늘어난 전력 공백을 무엇으로 메울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전력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필요한 곳까지 제때 보내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신규 산단은 대개 기존 전력망이 촘촘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해 대규모 송전선로와 변전소 확충이 시급하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반도체·AI 클러스터 전력 및 용수 기반시설 확충에 1조9000억원 이상을 배정했다. 비수도권 전력망 사전 구축을 위한 '수요유치형 변전소' 신설, 송전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계통 전기품질 안정화 설비 등 선제적 재정 투입이 본격화됐다. 만성 적자에 시달려온 한전을 위한 5000억원 규모의 현금 출자도 신설됐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과 조화로운 에너지믹스를 통해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조 원의 재정 투입과 송전선로 건설이 지역 주민의 수용성 문턱을 넘어 제때 완공될 수 있을지가 향후 성패를 가를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송정동 호남권 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후보지. /전남광주시

AIDC 전력 수요 잡는다… 엔진·SMR 등 인프라 총력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⑩ HD현대

HD현대

정부가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 중심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HD현대 그룹의 전력 인프라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HD현대는 발전엔진과 전력기기 생산능력을 확충하는 한편, 해상풍력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도 기자재 공급과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사업별로 수주와 상용화 단계에 차이가 있는 만큼 발전사업의 발주·착공 일정과 기술 검증 등이 향후 사업 확대의 변수로 꼽힌다.

◆ 발전엔진 생산능력 4GW로 확대…AI 전력설비 수요 대응

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총 18.4기가와트(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 및 냉각 시스템의 국산화와 공동실증도 지원할 계획이다.

HD현대중공업은 자체 개발한 힘센(HiMSEN)엔진을 활용해 데이터센터 등 산업시설용 육상 발전설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늘면서 전력망을 통한 공급과 함께 자체 발전설비를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9월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8336억원을 투자해 연간 3GW 규모의 육상 발전용 힘센엔진 생산기지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2028년 5월 준공이 목표로, 완공 시 육상 발전엔진 생산능력은 연간 4GW로 확대된다. 신규 공장에는 엔진 조립·시운전과 크랭크샤프트 가공, 엔진 블록 주조 설비 등이 들어선다.

HD현대일렉트릭도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의 전력기기 수요 확대에 대응해 생산시설 투자를 늘리고 있다. 지난 27일 청주 배전캠퍼스 2단계에 1980억원을 추가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울산 선암공장의 배전반·배전변압기 생산시설을 청주로 이전해 생산거점을 일원화하고 전력기기 패키지 발주 증가에 대응할 계획이다.

기존 공급 실적도 확보하고 있다. 지난 2024년 HL디앤아이한라와 삼성전자 평택 345kV 변전소 신축공사에 고압차단기 등 변전설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 3분기 배전기기·신사업 부문 매출은 반도체용 배전변압기와 북미 배전기기 판매 증가,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매출 반영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85.8% 증가했다.

지난 15일에는 LG CNS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외 데이터센터에 전력·배전기기 패키지를 공급하고 전력 운영 효율화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

HD현대그룹은 발전엔진과 전력기기 분야에서 기존 수주 실적을 바탕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추가 투자가 실제 공급 증가로 이어지려면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등의 건설 일정에 맞춰 발전설비 발주와 전력망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평가다.

HD현대 관계자는 "메가프로젝트와 전력망 확충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정부·한전·지자체와 업계 간에 수요 전망, 계통 연계, 인허가 일정 등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며 "초고압 전력기기와 대용량 발전설비 등 장기 개발·인증 부담이 큰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해 현실적인 지원과 실증 기회가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체 개발 '힘센엔진', 육상 발전설비 공략
울산 생산기지 8336억 투자, 연간 4GW 생산

청주로 배전반·배전변압기 생산기지 일원화
1980억 추가 투자… 패키지 발주 증가 대응

LG CNS와 데이터센터 전력기기 공급 협력

태안 해상풍력단지 설치 해상변전소 본계약

부유식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상업용 수주도

SMR 주기기 제작 전용공장 구축에 2836억

12개 기관과 'SMR 해양기술 실증센터' 출범

◆ 태안 해상변전소 본계약 확보…부유식 풍력은 상용화 준비

정부의 해상풍력 보급 확대에 따라 해상변전소와 풍력발전기 하부구조물 등 관련 기자재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6월 발표한 '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이행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10.5기가와트(G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을 준공하거나 착공하고, 2035년까지 누적 25GW를 보급할 계획이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0월 1일 태안풍력발전과 충남 태안군 인근 500메가와트(㎿) 규모 해상풍력단지에 설치할 해상변전소 본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3월 사전설계계약과 7월 우선공급계약을 거쳐 설계·조달·제작·설치·시운전을 일괄 수행하는 계약으로 이어졌다.

해상변전소는 풍력발전기가 생산한 전력을 모아 전압을 높인 뒤 육상 전력망으로 보내는 설비다. HD현대중공업은 자체 개발한 500㎿급 해상변전소 모델 'Hi-OSS'에 대해 지난해 노르웨이선급(DNV)의 기본설계 검증을 획득하고 올해 8월 상세설계 검증을 완료했다. 회사는 태안 사업을 바탕으로 국내 다른 해상풍력 프로젝트에서도 추가 수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유식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은 상업용 수주를 추진하고 있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바다에 떠 있는 구조물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수심이 깊은 해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자체 개발한 'Hi-Float' 15㎿·18㎿급 모델에 대해 미국선급(ABS)의 개념승인을 확보했다.

해상풍력 사업 확대의 변수는 발전단지 개발 일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개별 사업자가 28개 법령에 따른 42개 인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주민 수용성과 군 작전성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3월 해상풍력 특별법을 시행하고 국가가 입지를 발굴해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했다. 해상변전소와 하부구조물은 발전단지 개발 일정에 맞춰 제작·설치되는 만큼 인허가와 착공 지연은 신규 기자재 발주와 기존 계약의 납품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다.

HD현대 관계자는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로 관련 기술을 확보한 국내 조선업계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을 고도화하려면 정부 차원의 국책 연구·실증사업 지원과 인허가 간소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❶HD현대중공업이 지난 6일 울산과학기술원에서 'SMR 해양 기술 실증센터' 출범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❷지난 10월 1일 진행된 태안 해상변전소 프로젝트 계약 체결 기념행사에서 원광식 HD현대중공업 해양에너지사업본부장(오른쪽)과 클레멍 엘빅드 발자크 태안풍력발전 프로젝트 최고경영자(CEO)가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❸HD현대중공업 육상발전용 힘센(HiMSEN) 가스엔진 H54GV 모델. /HD현대·HD현대중공업

◆ SMR 주기기 공장 선제 투자…해양 원전 실증 기반 구축

HD현대그룹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주기기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해상 원자력 발전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SMR은 주요 설비를 모듈화한 소형 원자로로, 향후 데이터센터와 산업시설 등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차세대 발전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9월 SMR 주기기 제작 전용 공장 구축에 2386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2029년 4월 투자 완료를 목표로 원자로 용기 등 핵심 기자재의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SMR 상용화에 따른 발전설비 수요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해상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는 국내 기술개발과 실증 기반 구축에 나섰다. 지난 6일 HD현대중공업과 HD한국조선해양은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한국전력기술, 현대건설 등 12개 기관과 'SMR 해양기술 실증센터' 출범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여 기관들은 연구 인프라를 공동 활용해 해양 SMR 핵심기술 개발과 시험·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HD현대 관계자는 "SMR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분야인 만큼 원천 설계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규정에 부합하는 기술기준과 제도가 마련되도록 민관 협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HD현대일렉트릭 울산 사업장 전경. /HD현대일렉트릭



조금 더. 해보고 싶어
조금 더. 잘하고 싶어
조금 더. 좋아지고 싶어
조금 더. 도전하고 싶어

이 작은 마음에
전부를 걸었던 때가
누구에게나 있다

아직도
이 작은 마음에
전부를 걸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

“오늘도 조금 더”

We Do Technology | SK hynix

초심

820조 예산 심사 돌입… 162조 미래대응기금 놓고 여야 격돌

초과세수로 미래대응기금 편성
與 "성장동력 확보 위한 필수 투자"
野, 문제사업 30조 지출 삭감 추진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4주 간의 국정감사를 마치고 82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선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로 편성된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와 각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특위는 지난달 30일 예산안 심사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고 국회는 2일엔 정부 측 시정 연설을 청취한다. 이후 예결특위에서 4~5일에 부처 수장들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며 그 다음주부터 경제·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한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오는 12월2일까지인 가운데,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에 합의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의 간극이 가장 큰 지점은 '미래대응기금'이다. 이재명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18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호황기에 세수 증가분을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세수가 줄어드는 시기에 활용할 수 있다며 미래대응기금이 '재정안정화 장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초과세수로 '빚부터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에 지적에 정부는 "증가한 세수로 모두 국채를 상환할 경우 국채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성장을 통해 재정기반을 확충하는 "'성장주도형 재정건전화'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 몫으로 편성된 예산을 심사 과정에서 지켜 성장과 투자에 적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재정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로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규모의 기금 편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멈춰 선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한 담대한 미래 투자"라며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로 대한민국은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 지금이 투자의 적기"라고 진단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투자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려 한다"며 "반도체와 AI(인공지능),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같은 미래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미래 성장을 이끌 청년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 지방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주도 성장 예산도 두 배로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묻지마식으로 발목만 잡을 것이 아니라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의 책임부터 돌아봐야 한다"며 "연구 현장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훼손했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 미래 세대를 걱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미래를 걱정한다면 무조건적인 발목잡기와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원(49.8%) 늘어난다. 그런데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00조원 넘게 불어 1520조원이 된다"면서 "그 사이 미래대응기금에는 구체적 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여유자금 104조원이 쌓인다. 곳간이 넘치는 해에 빚도 함께 느는 나라,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미래 투자'의 실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고무도장이 아니라 곳간지기가 되겠다. 초과세수는 기금에 쌓아 두기 전에 국채 상환에 먼저 쓰도록 끝까지 요구하겠다"며 "검증되지 않은 현금성·선심성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걷어내겠다. 통제 장치 없는 기금 운용에는 동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라 곳간은 정부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며 "정부가 낸 빚을 우리 아이들이 떠안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힘은 그 곳간을 지키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의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총 30조원 규모의 지출 감액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 4000억원을 전액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해 국가채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오는 3일 ▲일자리 문제 ▲소득과 생계 ▲돌봄 ▲국민안전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5대 해결 예산'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민주당, 정청래 재등판·신천지 논란에 긴장

정청래, 김민석 100일 평가 예고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 공개 예정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번주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의 신천지 교인 '민주당 당원 집단가입 의혹' 조사 결과를 보고 받는 의원총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여, 계파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8·17 전당대회에서 경쟁을 벌인 정청래 전 대표는 당 대표 취임 100일이 '정치적 평가의 시점'이라고 표현하며 김민석 지도부 비판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정청래 전 대표는 전날(10월31일) 유튜브 '박시영TV'의 '정치수련회'에 출연해 당 내에서 자신의 역할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전당대회 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시지 외에 전면에 나서는 정치적 행동을 자제해 왔다.

정 전 대표는 김민석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취임 100일 내 정당 지지율 10%포인트(p) 상승' 공약에 대한 질문에 "100일 정도 되면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본다. 성과, 지지율, 여러가지 평 이런 것들이"라며 "그 이후에 저의 역할은 무엇일지, 그리고 제가 기치를 내걸 것은 무엇인지, 그때 어떤 깃발을 들 건지, 그 깃발에 어떤 글씨를 쓸 건지 지금 하나하나 생각하고 글을 써 놓고 있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김 대표 취임 100일은 11월24일이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전당대회 직전인 지난 8월11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1%였고,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25%였다. 민주당은 연령층별 조사에서 18~29세와 7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을 앞서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지난달 27~29일 한국갤럽이 조사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5%,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0%로 오히려 양당 사이 격차가 좁혀졌다. 민주당은 연령층별 조사에서 18~29세,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국민의힘에 뒤쳐지며 김민석 지도부 출범 후 오히려 지지도 조사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을 보였다.

정치권은 정 전 대표가 이러한 지지도 흐름을 공략하며 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예고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 전 대표는 김 대표가 당 대표 직속 '대통합추진단'에서 논의하고 있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에 대해서도 말을 보탰다. 그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작업을 적어도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과는 수십 년을 함께 살고 3년간 헤어져 산 것"이라며 "같은 뿌리이고 같은 집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 임박해서는 불가능하다"며 "원래 제가 합당 제안 선언을 했을 때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는 것이 대체적인 합의였다.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가 지났으니 빨리 움직여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런 와중에 민주당은 오는 5일 열리는 본회의 전에 박선원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아 조사한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 '민주당 당원 집단가입 의혹' 조사 결과를 의원총회에서 보고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전후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반명(反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연합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친청(친정청래)계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조사 결과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의원총회에서 TF 조사 결과가 공유되는 만큼, 조사의 신뢰성과 추후 수사 의뢰 여부를 두고 계파 간 설전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방법을 통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조사로 실시됐다. 8월11~13일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p), 응답률은 9.7%다. 10월 27~29일 조사는 같은 방법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10.4%다. 여론조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태홍 기자

李, 오늘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

예산 기조 설명·국회 협조 요청할 듯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은 이번이 취임 후 네 번째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6월(추가경정예산안), 지난해 11월(2026년도 본예산안), 올해 4월(추경안) 등 취임 후 3차례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지출 기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727조9000억원)보다 12.8%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이자,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예산안에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안정, 지방 주도 성장 등을 위한 재정 투자 등이 담겼다. 특히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예진 기자 syj@

민주당, 조희대 국조 앞두고 계엄 재소환

계엄 동조 의혹에 초점
성과 없으면 역풍 부담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앞두고, 조 대법원장의 '계엄 동조' 의혹을 다시 꺼내들고 있다. 국정조사를 놓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역풍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우려 중 가장 상징성 있는 '계엄'을 띄운 것으로 분석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이르면 내주 조사계획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제시한 국정조사 대상은 ▲대선 직전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대응 ▲대법관 재제청 ▲업무추진비 집행·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김건희씨 재판 지연 의혹 등 5가지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 모두에서 조 대법원장의 헌법·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으나, 국정조사에서는 '계엄 동조' 의혹 규명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그러나 국정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하다. 조 대법원장의 출석이 이뤄질지, 국정조사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특히 국정조사 이후에도 탄핵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열었다는 비판만 받으며 역풍이 일 수 있다.

/서예진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모두를 위한 하나의 금융이
내일을 위한 행복의 기회로

누구나 더 밝은 내일을 그려가도록 하나금융그룹이 포용금융으로 힘을 더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은 누구나 필요한 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금융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의 금융권리를 넓혀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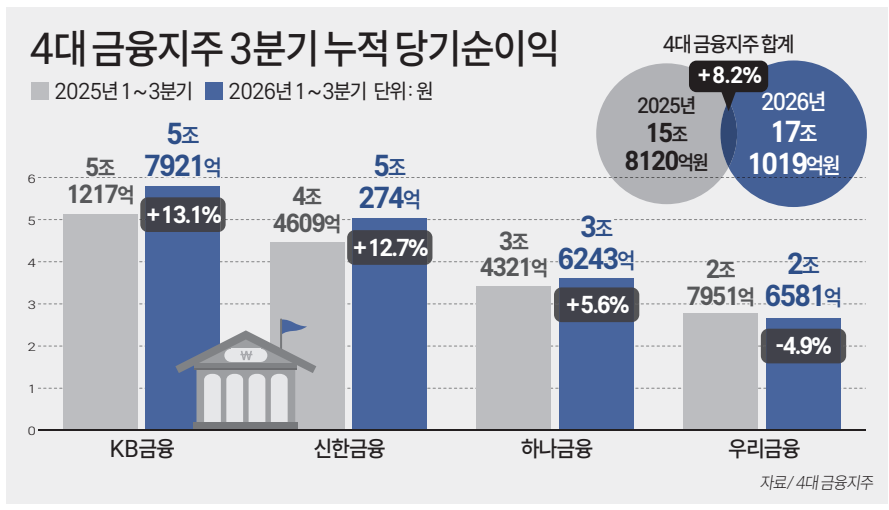
- 청년 및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 채무자보호 및 범죄예방
-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내재화

✦ 해당 제작물은 생성형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4대 금융, 3분기 누적순익 17조 '신기록'… 전년비 8% ⬆

KB, 전년대비 13% 증가한 5.8조
이자이익 성장, 수수료 확대 성과
신한, 이자·비이자이익 고른 성장
하나, 누적순익 역대최대실적 달성
우리, 보험사 인수 기저효과 순익⬇



자료/ 4대 금융지주

국내 4대 금융지주가 올해 3분기까지 17조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거두며 역대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이자이익의 안정적인 성장에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 확대가 더해지면서 금융지주들의 수익성이 개선된 영향이다. KB금융은 누적 순이익 5조8000억원에 육박하며 연간 순이익 6조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총 17조101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2899억원(8.2%)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금융지주별 누적 순이익은 KB금융이 5조792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금융 5조274억원, 하나금융 3조6243억원, 우리금융 2조6581억원 순이었다.

KB금융은 올해 3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한 5조7921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안정적인 이자이익 성장과 수수료이익 확대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특히 순수수료이익이 4개 분기 연속 1조원을 웃돌면서 비이자 부문의 수익 창출 능력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KB금융은 연간 순이익 6조원 달성까지 2079억원만을 남겨두게 됐다. 올해 4분기 실적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순이익 6조원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도 3분기 누적 순이익 5조27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2.7% 성장했다. 순이자마진(NIM) 개선과 자산 성장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 수수료이익 확대 등이 실적을 뒷받침했다.

신한금융의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9%, 8.2% 증가했다. 대손비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그룹 전반의 이익 성장세가 이어졌다.

하나금융은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한 3조6243억원의 누적 순이익을 기록하며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자산관리(WM)와 투자은행(IB) 부문의 수수료이익 증가가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탰다. 하나금융의 이자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4%, 수수료이익은 29.8% 늘었다.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비용 효율화도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다.

우리금융은 3분기 누적 순이익 2조65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보험사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성 이익을 제외하면 순이익은 1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금융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1조원 이상의 순이익을 거두며 그룹 출범 이후 처음으로 두 분기 연속 분기 순이익 1조원을 넘어섰다. 기업대출 중심의 자산 성장과 비은행 부문 경쟁력 강화가 실적을 뒷받침했다.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도 각각 4.5%, 13.9% 증가했다.

4대 금융지주의 실적 개선에는 이자이익뿐 아니라 자산관리와 투자은행 등 비이자 부문의 성장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수수료이익 확대가 두드러지면서 금융지주들의 수익원이 다변화되는 모습이다.

다만 금융지주별 실적 증가 폭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KB금융과 신한금융이 두 자릿수 순이익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하나금융은 한 자릿수 증가에 그쳤고, 우리금융은 지난해 일회성 이익에 따른 기저효과로 누적 순이익이 감소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지역기업 맞춤형·단계별 금융 지원… 성장동력 확보

5대 지방은행 '지역 동반성장'
정부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정책 목표
지역 中企 전략산업 육성 적극투자

지방은행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공급을 늘린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소매금융 매출 성장에 제동이 걸린 만큼, 지역 중소기업과 전략산업 육성에 적극 투자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금융 공급을 늘리는 '생산적 금융'을 정책 목표로 추진 중인 만큼 각 지방은행도 지역과의 동반성장을 전략 목표로 설정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비수도권에 본점을 둔 5대 지역은행(부산·iM·경남·광주·전주)은 하반기 핵심 경영전략으로 일제히 '지역과의 동반성장'을 제시했다.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매출 하락과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내 중소기업에 투자하고, 지역 특화산업 및 전략산업에 유동성을 적극 공급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먼저, BNK금융의 부산은행은 지역기업에 성장단계별 금융 지원을 공급하고 조선·해운 등 지역 주력산업에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남은행은 기존 대출 중심 영업을 산업 생태계 지원형 금융으로 확대 및 전환하고, 방산·조선·우주항공 등 지역 주력산업에 대한 금융 공급을 늘린다.

대구·경북에 영업 기반을 둔 시중은행 iM뱅크는 지역과의 공조를 강화한다. 기존 거점지역인 대구·경북 지역의 지역별 현안을 분석하고, 지자체의 정책 목표에도 참여하는 등 '지역과의 동행'을 강화한다.

JB금융의 광주은행은 지속되는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기업금융 공급을 늘린다. 또한 정부의 서남권 반도체 단지 조성 목표에 발맞춰 대응도 본격화한다. 전북은행은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대출을 확대하고 지역 정책금융기관과 연계해 특례보증을 공급하는 등 한계기업을 지원한다.

최근 지방은행들이 지역 기업 중심의 대출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을 제한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 4월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올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을 전년 대비 1.5%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의 1.7%보다 0.2%포인트(p) 낮다. 아울러 정부는 대출 총량을 연간이 아닌 월별·분기별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부동산 규제와 맞물린 대출 증가에 은행권의 가계대출 한도는 지난 상반기에 대부분 소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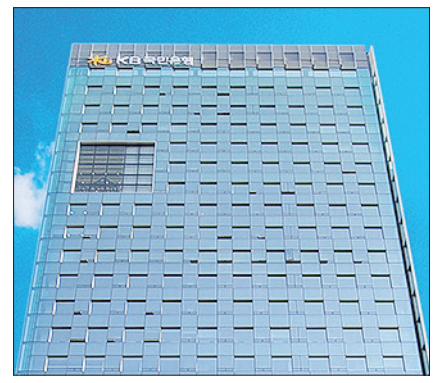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정책 목표도 각 지방은행이 기업금융 비중을 늘리는 이유다.

정부는 작년 9월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정책 목표를 발표했다. 주담대 등 부가가치가 낮은 대출에 쏠린 금융권 자금을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 및 비수도권 기업으로 재배치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일환으로 지방 소재 기업에 더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지방금융 확대목표제'를 마련했다. 비수도권 기업에 대출을 공급하는 은행에 예대율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각 지방은행들도 중소기업 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모습이다.

지방은행의 한 관계자는 "생산적금융의 목표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공급을 늘리고, 나아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지방은행들은 대형 시중은행보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성이 높고, 지역 내에 갖춰진 인프라도 많은 만큼, 각 지방은행들은 생산적금융을 새로운 영업 기회로 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KB국민은행 신관 전경.

KB국민은행

GPU 파이낸싱 금융주선 확보

브룩필드 추진… 12.6조 규모

KB국민은행은 글로벌 대체투자 운용사 브룩필드(Brookfield)가 추진하는 약 12조 6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컴퓨팅 인프라 사업의 금융주선권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딜은 국내 최초의 그래픽처리장치(GPU) 파이낸싱이자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의 신디케이트론 금융주선이다. 전체 사업 규모 가운데 약 10조 7000억원을 대출로 조달한다. KB국민은행은 대표 주선기관으로서 금융주선을 총괄한다.

해당 사업은 브룩필드가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GPU 등 AI 컴퓨팅 인프라를 확보하고, 이를 네이버클라우드에 장기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조달된 자금은 GPU 및 관련 장비 취득과 인프라 구축에 활용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이번 딜에서 금융구조 설계부터 주요 금융조건 협의까지 금융주선 전반을 주도했다. 특히 사업 특성과 단계별 투자 일정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구조를 마련해 대규모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 금융주선에는 KB국민은행을 비롯한 국내 주요 은행과 증권사가 참여한다. AI 컴퓨팅 인프라의 장기 공급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해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한 AI 인프라 사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FIU, 가상자산·사기 등 금융범죄 대응방안 모색

파리 OECD본부 FATF 총회 참석
회원국, 범죄차단 국제공조 확대 한 뜻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제35기 1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

지난 1989년 설립된 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CFT)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다. 한국·미국·중국·일본 등 38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등 총 40개 회원국, 200여개 네트워크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사기, 스캠 단지 등 진화하는 금융범죄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합의했다.

FATF는 이번 총회에서 최근 사기·스캠·제재 회피 등에 악용되는 가상자산 부문의 국제기준 이행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집중 분석 보고서 작성에 착수하고 후속 점검을 가속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차 라운드에서 가상자산 관련 기준(권고 15)을 평가받지 않았던 회원국들도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분석 결과는 오는 2027년 6월 총회에서 발표된다.

국내에서도 이번 점검을 통해 가상자산 및 사업자 부문의 자금세탁방지 제도 운영 성과를 종합 점검할 예정이다. 법제 운영의 효과성을 검토·보완해 향후 제5차 상호평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FATF는 초국경 스캠 단지와 연계된 불법 금융 흐름을 분석한 신규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제 범죄 네트워크의 자금 조달·이동 구조와 전문화된 범죄 서비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담은 보고서로, FIU는 신종 스캠 범죄의 주요 수법과 함께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정보공유·분석 플랫폼(ASAP) 등 범정부 협력체계를 모범사례로 공유했다.

회원국들은 개별 국가의 대응만으로는 초국경 범죄조직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VASP) 모니터링 강화, 의심거래 탐지부터 자금 동결 및 범죄수익 환수까지 전 과정에서의 국제 공조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과 멕시코의 상호평가보고서 논의를 통해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부과 및 법인 실소유자 정보 관리의 중요성도 재확인됐다. 한국 정부도 제5차 상호평가에 맞춰 관련 법률 정비 및 감독·검사체계 구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끝으로 금번 FATF 총회는 자금세탁방지 미이행국 평가에서는 이란과 북한, 미얀마는 기존의 고위험 국가 지위를 유지했으며,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그레이리스트)는 4개국이 제외해 18개국으로 조정했다. 차기 FATF 총회는 오는 2027년 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FATF 기준이행 미흡 국가들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스캠 단지가 확인된 국가들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기술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며, 인터폴 및 UNODC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한국이 시행 중인 민관 신속 정보공유 및 의심거래 정지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정보공유 과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삼성 '中 지분 인수', LG '현지투자'… 공급망·생산기반 강화

韓中 디스플레이 협력 관계 지속
삼성, 中 CSOT 지분 1.27조 인수
LCD 패널 공급망 안정화에 주력

LGD, 광저우 OLED 추가 투자
대형 OLED 생산기반 확충 속도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공장 전경. /LG디스플레이

국내 전자·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패널 업체의 지분을 확보해 액정표시장치(LCD) 공급망 강화에 나섰고, LG디스플레이는 현지 합작법인에 추가 투자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생산 기반을 확충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월 29일 이사회를 열고 삼성디스플레이가 보유한 중국 TCL 차이나스타옵토일렉트로닉스테크놀로지(CSOT) 지분 10.16%를 약 1조2718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지분 취득 목적을 '전략적 협업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번 거래는 계열사 간 지분 이전으로, 거래 예정일은 오는 12월이다. 실제 거래대금 지급 시점은 국내외 관련 인허가 절차가 완료된 뒤 결정된다.

삼성전자가 지분 인수에 나선 것은 TV용 LCD 패널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022년 LCD 생산을 종료했지만 삼성전자는 여전히 LCD TV를 판매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0년 중국 쑤저우 LCD 공장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TCL CSOT 지분을 확보했다.

LG디스플레이도 중국 광저우 OLED 생산시설에 추가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현지 국유기업인 광저우개발구홀딩스그룹 측과 함께 광저우 OLED 합작법인에 총 10억 위안(약 20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LG디스플레이가 지분율에 따라 7억 위안(약 1400억원), 중국 측이 3억 위안(약 600억원)을 부담한다.

투자금은 기존 광저우 공장 시설을 개조해 77·83·97·111인치 OLED 모듈 생산을 위한 후공정 설비를 구축하는 데 쓰인다. LG디스플레이는 광저우를 대형 OLED 주요 생산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5년 광저우 공장의 월간 유리기판 투입능력은 9만1000장으로 전년 7만5000장보다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파주 대형 OLED 공장의 월간 유리기판 투입능력은 5만8000장에서 3만5000장으로 줄었다. 광저우 공장의 생산능력이 확대되는 동안 국내 생산시설은 축소된 셈이다. LG디스플레이는 중국 현지 생산거점을 활용하면서 대형 OLED 사업의 생산 효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2025년 4월 광저우 LCD 공장 매각을 마무리했지만 OLED 합작법인은 유지하고 있다. 올해 3분기 전체 매출에서 OLED가 차지하는 비중은 67%로 전분기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중국 업체들과의 거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OLED 시장에서는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7월 8.6세대 IT용 OLED 양산을 시작했고, 중국 BOE도 지난 6월 8.6세대 OLED 양산 출하식을 추진했다. TCL CSOT는 광저우에 8.6세대 잉크젯 OLED 생산라인을 구축 중이다. LG디스플레이는 차세대 OLED 패터닝 기술 '플립(FLiPP)' 개발에 성공하는 등 국내 업체들도 기술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이 OLED 시장에서 빠르게 추격하고 있지만 LCD 패널 조달이나 현지 생산에서는 여전히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업마다 사업 구조와 필요한 제품이 다른 만큼 기술 경쟁이 심화되더라도 거래 관계는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SK온, ESS 공급 확대에 실적 반등 기대감

3분기 적자 전환에도 손실폭 축소
美 9GWh 규모 대형 공급계약 확보
내년부터 매출 반영·수익성 개선 기대



SK배터리아메리카 전경. /SK온

SK온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앞세워 실적 반등에 나선다. 전기차 배터리 판매 부진 속에 3분기 다시 적자를 냈지만 미국과 국내에서 확보한 ESS 수주 물량의 공급이 내년부터 본격화하면서 수익 구조 개선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SK온은 올해 3분기 805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한 분기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2분기 실적을 끌어올렸던 고객사 보상금 등 일회성 수익이 빠진 데다 주요 고객사의 배터리 판매 물량까지 줄면서, 매출도 1조526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0% 감소했다. 다만 적자 폭은 눈에 띄게 줄었다. 손실 규모는 일회성 요인이 없던 1분기(3492억원)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1248억원)보다도 443억원 개선됐다. 업계 안팎에서 예상한 1000억원대 후반 적자보다도 작은 규모다. 판매 부진 속에서도 원가 절감과 운영 효율화를 이어온 효과가 손실 축소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무 부담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SK온은 상반기 포드와의 합작법인 블루오벌SK 체제를 종료하고 테네시 공장을 단독 운영 체제로 전환하면서 약 5조4000억원 규모의 차입금 부담을 덜었다. 합작 정리 영향으로 6월 말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212.2%로 3월 말(257.9%)보다 45.7%포인트 낮아졌다. 상반기 유형자산 취득에 쓴 현금도 970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채비율은 여전히 배터리 3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재무 부담은 점차 완화되고 있다.

ESS 사업은 올해 4분기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미국 플랫아이언과 맺은 1GWh 규모 공급 계약 물량이 첫 매출로 반영될 예정이며 제주 장주기 ESS 중앙계약시장에서 확보한 물량도 내년부터 매출에 더해질 전망이다. 규모가 가장 큰 건은 지난 8월 미국 네오볼타 파워와 체결한 9GWh 규모 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셀 공급 계약이다. 계약 규모는 약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공급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이뤄진다. 양사는 9GWh 규모의 추가 협력도 추진하기로 해 협력 규모가 18GWh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원관희 기자 wkh@

폭스바겐 골프 R, 12년 만에 국내 돌아온다

333마력 고성능 해치백 내년 출시
사륜구동·주행 제어 기술 적용



폭스바겐 신형 골프 R. /폭스바겐

폭스바겐 골프 R이 333마력의 고성능 해치백으로 내년 국내 시장에 돌아온다. 2015년 이후 12년 만의 복귀로, 골프 특유의 실용성에 사륜구동과 주행 제어 기술을 더해 운전의 재미를 원하는 고객을 겨냥한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27~28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페 레이드에서 '골프 R 카페 오픈하우스'를 열고 신형 모델을 공개했다. 국내 출시는 2027년으로, 2015년 7세대 모델 이후 약 12년 만이다.

현장에 전시된 골프 R은 익숙한 해치백 차체에 고성능 모델의 특징을 더했다. 전면에는 R 엠블럼과 대형 공기흡입구를, 후면에는 배기구 4개와 대형 스포일러를 적용했다. 실내는 스포츠 시트와 파란색 장식으로 꾸몄다. 전시차는 독일 본사에서 들여온 차량으로 국내 판매 사양은 달라질 수 있다.

신형은 8세대 골프 부분변경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글로벌 사양 기준 2.0 ℓ 가솔린 터보 엔진과 7단 듀얼클러치 변속기를 조합해 최고출력 333마력을 낸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6초다.

앞바퀴를 굴리는 골프 GTI와 달리 사륜구동을 적용한 점도 특징이다. 좌우 뒷바퀴에 전달하는 구동력을 개별적으로 조절해 코너링을 돕고, 노면과 주행 상황에 따라 서스펜션을 조절한다. 골프의 실용성을 유지하면서 주행 성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프 R의 역사는 2002년 등장한 골프 R32에서 시작됐다. 4세대 골프에 3.2 ℓ V R6 엔진과 사륜구동을 결합한 모델이다.

/이승혁 기자 sh95@

HD현대로보틱스, AI로 로봇 프로그래밍 기간 63% 단축

팔란티어 AI 에이전트 활용 성과
업무 기간 21.5일서 7.9일로 줄여

HD현대로보틱스가 팔란티어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로봇 프로그래밍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지컬 AI 솔루션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HD현대로보틱스는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팔란티어의 '소버리니티 부트캠프'에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안성환 상무가 기조연설자로 참여해 양사의 협력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팔란티어 소버리니티 부트캠프는 기업의 데이터와 핵심 사업정보를 보호하면서 AI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다. 지난 7월 처음 개최된 이후 세 차례 행사에 글로벌 기관·기업 250여곳의 경영진 450여명이 참가했다.

안 상무는 기조연설에서 HD현대로보틱스의 피지컬 AI 적용 전략과 미래 비전을 소개하고 팔란티어와 추진 중인 협력 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공유했다.

양사는 AI와 시뮬레이션, 현장 엔지니어의 판단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로봇 프로그래밍 업무를 개선하고 있다. AI 에이전트가 기존 로봇 프로그램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엔지니어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보완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현장 엔지니어의 역할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로봇 프로그래밍과 설치·시운전 업무에서 나아가 현장의 문제를 정의하고 AI를 활용해 해결책을 구현하는 '현장 솔루션 전문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양사는 지난 8월부터 문제 해결 과정에 AI 에이전트를 도입해 평균 업무 소요 기간을 21.5일에서 7.9일로 약 63% 단축했다. HD현대로보틱스는 이러한 업무 개선을 통해 로봇 프로그래밍 비용을 5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양사는 주요 경영진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열어 협력 과제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추가 활용 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안 상무는 "피지컬 AI 역량을 더욱 고도화하고자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한화오션, 10년 만에 잠수함 발사장치 국산화

국방과학연구소와 공동 개발 성과

한화오션이 해외 기술에 의존해 온 잠수함 무장 발사장치를 국산화하며 차세대 잠수함의 성능 향상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기반을 마련했다.

한화오션은 국방과학연구소(ADD)와 10년에 걸친 협력을 통해 잠수함 핵심 장비인 '워터램(Water Ram) 방식 수평발사장치'를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1일 밝혔다.

수평발사장치는 잠수함 내부에서 어뢰 등 무장을 바다로 발사하는 장비다. 워터램 방식은 수압을 이용해 발사체를 밀어내는 기술로, 한화오션은 발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힘을 정밀하게 조절해 무장을 일정한 속도로 안정적으로 발사하는 기술을 확보했다.

장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단계의 안전장치도 적용했다. 깊은 바닷속에서 발사관 외부 문을 열 때 가해지는 높은 수압을 견딜 수 있도록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강한 충격에 견디는 내충격 성능도 갖췄다.

장비 구조를 단순화해 유지보수와 운용 편의성도 높였다. 다양한 잠수함에 맞춰 발사장치를 설계할 수 있는 발사력 해석 기술도 확보했다.

/유혜온 기자

車·가전 등 4만개 기업 최대 50% 할인… 내수 불씨 지핀다

중기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삼성·LG·현대차 등 주요기업 참여
지역·온누리상품권 할인 혜택 확대
해외서도 경험할 수 있는 축제 육성


'제2회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식'이 지난달 31일 경북 안동시 옛 안동역 일원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중기부

내수 활성화와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한 '제2회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이 이달 15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코그페 기간 동안엔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 뿐만 아니라 자동차, 가전 등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4만여개 기업이 참가해 내수에 불을 지필 예정이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경북 안동시 옛 안동역 일대에서 코그페 개막식이 열렸다.

개막식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이소영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김형동 국회의원,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치헌 안동시 부시장 등 주요 인사와 지역 주민 및 관광객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코그페 개막식은 최초로 전국 지방정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안동에서 열렸다.

개막식과 함께 옛 안동역 인근 5개 상권에선 할인 행사와 이벤트를 진행했다. 상생콘서트 티켓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면 2만원 상당의 안동사랑상품권을 환급해 관람객이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동구시장 찜닭축제를 비롯해 중앙신시장과 용상시장 등에선 야시장 운영, 먹거리 행사, 체험 프로그램,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가 펼쳐졌다.

개막식에 이어 열린 상생콘서트에서는 가수 송가인과 이찬원을 비롯해 비트펠라하우스, 힛지스, 캔디샵이 무대에 올라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

이소영 장관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안동시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안동에서 시작하는 코그페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힘차게 도약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코그페를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도 즐길 수 있고, 해외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올해 코그페는 동행축제(중소벤처기업부), K-세일페스타(산업통상부), 숙박세일페스타(문화체육관광부), 김장재료 할인행사·한우세일(농림축산식품부), 수산대전·수산물 상생대축제(해양수산부),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관세청), 우체국쇼핑 특가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주요 소비촉진 행사를 통합해 운영한다.

우선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지엠,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국내 완성 5개사는 중형 세단과 SUV 등 인기 차종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주요 가전사도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SSM)도 인기 육류와 제철 수산물 등을 최대 50% 할인 또는 '1+1 행사'를 통해 보다 싸게 소비자들에게 다가간다.

이외에 백화점, 편의점, 온라인 플랫폼 등도 대거 코그페 행사에 동참한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더욱 촉진하기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 혜택도 늘린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수도권은 8→13%, 비수도권은 10→15%, 인구감소지역은 12→17%로 할인율이 각각 높아진다.

강진군·안동시·고령군·천안시·과천시·안산시·가평군·광주시(경기)·제천시·옥천군 등 일부 지방정부는 추가 환급, 발행규모 확대, 구매 한도 상향 등 자체 혜택도 마련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2일부터 6일까지 닷새간 할인율을 7%에서 10%로 높여 판매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이용자 5600명을 추첨해 총 17억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상생소비복권'도 오는 15일까지 운영한다.

중기부 산하기관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대표 주관사로 참여해 행복한백화점, 동반성장몰, 소담스퀘어, 인천공항 면세점 등을 통해 우수한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한다.

공영홈쇼핑도 소비 촉진 동참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2000만원 적립 축제'를 진행한다. 또 오는 10일까지 '5% 쿠폰+5% 적립' 혜택도 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LCC, 부산 등 지방공항 국제선 확대 움직임

겨울철 맞아 해외 여행객 수요 대응
동남아 등 신규 취항·증편 이어져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겨울철을 맞아 지방공항 국제선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동남아 노선의 신규 취항과 증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공항을 통한 외국인 입국도 늘고 있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관할 공항의 올해 동계시즌 국제선 정기편 운항계획은 주 3206편으로 직전 하계시즌보다 332편(11.6%) 증가했다. 중국 노선은 주 844편으로 17.5%, 동남아 노선은 주 600편으로 32.7% 늘었다.

항공사들의 노선 확대는 부산에서 활발하다. 에어부산은 지난달 25일 부산~가고시마 노선에 주 3회 부정기편 운항을 시작했다. 오는 11일부터 부산~치앙마이 노선을 주 4회 운항하고, 다음 달 2일부터는 부산~광저우 노선을 주 4회 정기편으로 전환한다.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25일 부산~홍콩, 29일 부산~샤먼 노선에 잇달아 취항했다. 다음 달에는 부산~항저우와 청주~샤먼 노선을 개설할 계획이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25일부터 부산~상하이 노선을 주 4회에서 7회로 늘렸다. 증편은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진다. 다음 달 17일에는 부산~마닐라 노선에 주 5회 신규 취항할 예정이다.

겨울 성수기에 맞춘 증편과 외국인 수요 확보도 병행한다. 에어부산은 부산~치앙마이 노선을 다음 달 22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주 4회에서 6회로 늘린다. 이스타항공의 부산~홍콩 노선은 첫 운항편에서 외국인 승객 비중이 83%를 기록했다. 지난 3월 취항한 인천~홍콩 노선의 평균 탑승률도 약 90%다. 이스타항공은 부산 노선에서도 현지 수요를 공략해 안정적인 탑승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지방공항에서도 국제선 운항망이 넓어진다. 청주공항은 샤먼 등 중국 노선 신설로 취항지를 다변화한다. 대구공항은 상하이·삿포로·오사카 노선을 증편하고 지난 9월 취항한 장자제 노선도 동계 운항을 이어간다.

외국인 입국 수요도 늘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1~9월 김해·제주·청주·대구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약 324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4% 증가했다. 공항별 증가율은 청주 59.5%, 김해 47.9%, 제주 27.9%였으며 대구는 0.8%였다.

이들 4개 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은 약 130만명으로 29.4%, 대만인은 약 96만명으로 60.4%, 일본인은 약 45만명으로 43.5% 늘었다.

국제선 확대를 위한 운항 여건도 개선됐다. 이번 동계 운항계획에는 김해공항의 시간당 최대 운항 횟수를 27편에서 30편으로, 청주공항은 8편에서 10편으로 늘린 조치가 반영됐다.

/이승혁 기자 sh95@

중기부,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사업 실태점검

정상적 작동·경영활동 활용 등 확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통해 스마트기술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사업장 1만2000곳을 대상으로 활용 실태를 점검한다. 기술 활용에 어려움 있는 소상공인 대상 사후관리 제공도 이루어진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2일부터 시작하는 점검은 정부 지원으로 보급한 스마트기술이 소상공인 영업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경영활동에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아울러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사후관리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선 조사원이 지원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스마트기술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영업 현장에서의 실제 활용 여부 ▲기기 사용과 관련한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과정에서 기기 고장이나 작동 이상이 확인되면 공급기업과 연계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고, 사용 방법 미숙 등으로 기기 활용도가 낮은 경우에는 추가 교육 등을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선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위해 보급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설치·작동 상태와 현장 활용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스마트기술은 단순히 매장에 설치하는 것만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실제 영업 현장에서 계속 활용할 때 경영 효율화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현장 점검을 통해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고 스마트기술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YG의 카톡 car talk

폭스바겐 'ID.5'

넉넉한 공간·충분한 가속성능 갖춰


폭스바겐 쿠페형 순수 전기 SUV ID.5.

폭스바겐이 국내 시장에 ID.4에 이어 두 번째로 출시한 순수 전기차인 ID.5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MEB를 기반으로 한 쿠페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세련된 디자인과 전기차 특유의 민첩한 반응을 앞세운 모델이다. 최근 서울 복잡한 도심과 경기 파주 헤이리 등을 주행하며 차량의 성능을 경험했다.

우선 ID.5는 전장과 전폭, 전고는 각각 4600㎜, 1850㎜, 1620㎜다. 2765㎜의 휠베이스를 바탕으로 쿠페형 디자인에도 실내는 여유롭다. 2열 공간 역시 성인이 탑승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트렁크 용량은 기본 549L로, 2열 시트를 접으면 최대 1561L까지 확장된다. 특히 실내 공간은 군더더기 없는 심플한 디자인과 공간 활용성을 함께 고려한 설계가 돋보인다.

주행 성능은 폭스바겐 특유의 단단한 감성을 느낄 수 있다. 고속 구간에서의 가속 반응은 경쾌하다. 최고출력 286마력, 최대토크 55.6kg·m를 발휘해 운전자가 요구하는 만큼 민첩하게 속도를 끌어올린다. 일상 주행은 물론 추월 상황에서도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편의사양도 강화했다. 12.9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음성인식 기능 'IDA'를 적용해 조작 편의성을 높였으며,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IQ.드라이브도 탑재했다. 1회 충전 주행거리는 ID.5 Pro 기준 복합 451㎞다.

ID.5는 주행 완성도와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전기 SUV다. 쿠페형 디자인을 원하면서도 넉넉한 공간과 충분한 가속성능을 중시하는 소비자에게 선택지가 될 만하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차·기아, 주요 차종 할인·구매혜택 확대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아반떼·쏘렌토 등 주요 차종에 대한 할인과 구매 혜택을 확대한다.

현대차·기아는 국내 대표 쇼핑 축제인 '2026 K-세일페스타'에 참가한다고 1일 밝혔다. 현대차는 12월 31일까지, 기아는 11월 한 달간 주요 차종에 다양한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차는 아반떼·그랜저·싼타페 등을 대상으로 할인을 진행한다. 제네시스 G80과 GV70에도 특별 구매 혜택이 주어진다.

기아는 11월 신차 출고 고객을 대상으로 16개 차종, 총 1만 대를 최대 11% 할인 판매한다. 차종별 최대 할인율은 쏘렌토·타스만 11%, K9·EV6·봉고 EV 10%, 봉고 LPG 9%, 카니발·K5·K8·EV3·EV4·EV9 8%, EV5·PV5 7%, 니로 6%, 스포티지 5%다.

/김승호 기자

Salut Lucide
UV PROTECTION PATCH

6시간 야외활동 후, 피부는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 더 우아한 선케어

골프, 여행 등 야외 활동을 위한 초슬림 투명 UV패치

세계 100대 골프 코스,
엄격한 제품 선별 기준의
해슬리 나인브릿지에 국내 유일 입점

UV-A 98% / UV-B 99% 차단
광대까지 커버되는 88mm × 60mm 대형 패치
접착제 없이 편안한 밀착
자외선 차단 + 피부 보습 케어



Anano Inc. | 070-7773-9931 |

■ **가양역_메가팜스 가양**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금부빌딩 3층
■ **을지로입구_명동퍼스트약국**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14 눈스퀘어 1층 (T.02-3789-7277)
■ **명동역_Hello K Beauty** / WYNN (Currency Exchange, ATM, LUggage)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6길 6, 원스환전소 2~3층
■ **양재역_메디피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42, 크리스탈빌딩 1층 (T.02-3463-1547)
■ **신논현역_비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76, urbanhive 지하 2층 (T.02-542-8559)
■ **해슬리 나인브릿지** / 경기도 여주시 명품1로 76 (T.031-887-9999)
■ **제주 나인브릿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로 34-156 (T.064-793-9999)

SKT, '1인 1에이전트' 넘어 조직 혁신… 전사 AX 성과 속도

'AX 무브먼트 1.0' 성과 보고·전략
임직원 과반 "업계 중 AX 수준 앞서"
플랫폼 고도화, 데이터 권한 재정비
에이전트 사번제로 임직원 관리



30일 경기도 이천 SK텔레콤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인수 AI브로드팀장이 AX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SK텔레콤

SK텔레콤이 전사 인공지능 전환(AX) 목표를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확장한다. 이를 위해 임직원의 인공지능(AI) 활용 문화를 바탕으로 구조적 장벽을 해소하고 조직 단위의 혁신을 추진한다.

SK텔레콤은 지난달 30일 경기도 이천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AX 현황을 발표했다. 앞서 추진한 'AX 무브먼트 1.0'에 대한 성과 보고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이 담겼다.

◆ AI 도입에 임직원 적극 참여…절반 이상이 "AX 수준 앞선다"

이날 발표를 진행한 김인수 SK텔레콤 AI브로드팀장은 "무브먼트 1.0 목표는 구성원 대다수가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며 "전사적으로 돌아가는 AI 에이전트 1500개, 에이전트 월 사용자 7500명, 직접 에이전트를 만들어본 구성원은 4000명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AX 무브먼트 1.0은 SK텔레콤이 '1인 1에이전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 전사 AX 전략이다.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활용하도록 독려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김 팀장은 "내부 설문 조사 결과, 임직원 중 93.8%가 회사의 AX 추진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관련 업계 보다 AX 수준이 앞선다는 데에는 과반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다만 AI 활용 과정에서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도 있었다. SK텔레콤은 이를 기회로 삼고, 기술 기반 마련과 AI 중심의 업무 표준화를 위한 혁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AI 전사 키워 조직 체계 바꾼다…에이전트 사번제로 인사 평가

SK텔레콤은 우선 임직원 개개인의 AI 활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AX 이네이블러(Enabler) TF'를 가동한다. 에이닷 비즈와 같은 AI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데이터 통합과 접근 권한을 재정비한다. AI 활용 중에 사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거나 시스템 연동이 막혀 있으면 업무 혁신으로 이어지기 어려워서다.

이를 바탕으로 평가체계 도입 등 임직원 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SK텔레콤은 '에이전트 사번제'를 적용해 궁극적으로 인적 자원과 기술 기반의 AI 에이전트 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AI 기능에 맞춰 특정 업무를 진행하고, 조직 구조를 다시 설계한다. SK텔레콤은 'AX 샌드박스'를 추진해 기존의 팀별 역할 분담의 체계에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재정비한다. 지난해 상반기 중 약 3개월 동안 이를 적용한 서비스 개발 업무를 진행했으며, AI 중심의 새로운 업무 협업 체계를 전사 조직으로 확장 중이다.

마지막으로 AI 전문가가 아닌 임직원 중 AI 활용을 선도하는 사람을 선발해 사내 AX 전환에 앞장서도록 한다. SK텔레콤이 지난 AX 전환 과제에서 조사한 내부 데이터에 따르면 사내 '퍼스트 무버'는 약 20%다. 이 중 10명을 추려 스스로 조직 내에 필요한 과제를 직접 발굴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거대언어모델(LLM) 이용 비용과 사내 데이터 접근 권한 등을 적극 지원해, 향후 성과가 확인된 사례를 전 조직으로 확산한다. 내년에는 2기를 새로 뽑아 해당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 민감 정보 보호·메타 데이터 구축…기술 개발로 AX 장벽 낮춰

기술적으로는 세 가지 과제를 안게 됐다. 먼저 기업의 대외비 정보가 다른 AI 모델로 전송될 수 있는 점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방대한 사내 데이터베이스를 AI가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체계와 비용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AI 중심의 조직을 다시 설계하더라도 업무 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SK텔레콤은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도 제시했다. 먼저 정보 보호와 보안을 위해 Z.E.Z(Zero Exposure Z one)을 구축한다.

김 팀장은 "의료비를 정산한다고 가정했을때, 영수증을 업로드 하는 순간 민감정보가 노출되는 문제 때문에 담당자들이 수기로 처리한다"며 "구성원들이 편리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게 원문이 노출되지 않고 대상자 여부만 확인하는 하는 장치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사내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데이터 데스크'도 적용한다. SK그룹이 보유한 AI 풀스택 인프라를 활용해 에이전트가 활용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SK텔레콤이 거대언어모델(LLM)을 돌려 조직 한 곳의 내부 데이터를 정리하는 비용을 추산한 결과 최대 2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추론에 특화된 신경망처리장치(NPU)를 활용해 자사 AI 모델인 에이닷 엑스 등으로 메타 데이터를 만든다.

조직원들이 업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워크맵'도 도입한다. 조직의 핵심성과지표인 KPI와 기존의 업무 자료를 AI에 먼저 입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 흐름의 초안을 작성한다. 이후 세부적인 내용은 개인이 직접 수정해 맞춤형 워크 플로우를 구축한다.

SK텔레콤은 AX 무브먼트 전략을 효율적인 조직 혁신의 도구로 활용한다. 변화 과정 중 정체 구간인 J커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AX의 숙명을 최대한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쇼핑·공연·결제 한 번에… 네이버 멤버십 생태계 확장

르포
성수 '넵페스타'

'노크잇' 첫 오프라인 쇼룸 마련
넷플릭스 제휴 2년 '네넷존' 눈길
다양한 서비스로 멤버십 경쟁력 강화



심준용 네이버 브랜드익스피리언스 리더(왼쪽)와 이재후 네이버 엔터테인먼트 부문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서울 성수동 한복판에 네이버의 쇼핑·콘텐츠·결제 생태계가 통째로 들어섰다. 초록색 캐릭터가 방문객을 맞이하는 행사장 안에서는 화장품과 패션 브랜드의 체험 이벤트가 이어졌고, 곳곳에서 경품을 담은 쇼핑백이 눈에 띄었다. 온라인에서 클릭으로 경험하던 네이버의 서비스가 오프라인 공간에서 직접 보고 즐기는 축제로 바뀐 것이다.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 앤더슨씨 성수에서 열린 네이버의 첫 오프라인 페스티벌 '넵페스타' 현장을 찾았다. 네이버는 이날부터 11월 1일까지 사흘간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이용자를 대상으로 브랜드 체험과 음악 공연을 결합한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사흘간 총 3000명이 방문하는 규모로 기획됐다. 관심은 예매 단계부터 뜨거웠다. 네이버페이(Npay)로 20만원 이상 결제한 멤버십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선예매에서 티켓 3000장이 불과 40분 만에 매진됐다. 온라인에서 확보한 멤버십 이용자 기반이 오프라인 행사 참여로 이어진 셈이다.

행사장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것은 층마다 다른 콘셉트로 꾸며진 브랜드 공간이었다. 2층에는 네이버 패션 서비스 '노크잇(KNOCKIT)'의 첫 오프라인 쇼룸이 마련됐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던 의류를 직접 살펴보고 착용한 뒤 QR코드를 통해 구매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인근에는 멤버십 이용자를 위한 추가 적립 혜택을 소개하는 공간도 마련됐다.

3층 라이프·뷰티존에서는 브랜드별 개성이 두드러졌다. 메디큐브와 키엘 등 브랜드 부스마다 제품 전시와 참여형 이벤트가 이어졌다. 메디큐브 부스에서는 경품 이벤트가 진행됐고, 방문객들은 제품을 살펴보거나 휴대전화로 이벤트 참여 화면을 확인했다. 단순히 상품을 진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체험하고 혜택을 받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었다.

4층 푸드존에는 네스카페와 하겐다즈 등 식품 브랜드가 자리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브랜드별 이벤트 참여에 따라 굿즈와 경품을 받을 수 있었다. 방문객들이 들고 다니는 초록색 쇼핑백은 넵페스타의 또 다른 상징처럼 보였다.

네이버와 넷플릭스의 협업 공간인 '네넷존'도 눈길을 끌었다. 한국적인 배경과 콘텐츠 캐릭터를 활용한 전시물 앞에서 방문객들이 사진을 찍고 콘텐츠를 둘러봤다. 네이버는 이곳에서 넷플릭스와의 제휴 2년을 돌아보는 전시와 멤버십 이용자 대상 기념품 이벤트를 마련했다.

행사의 또 다른 축은 음악 공연이다. 사흘간 선미와 화사, 자이언티, 카더가든, 실리카겔 등 아티스트들의 무대가 편성됐다. 쇼핑과 브랜드 체험을 위해 방문한 이용자가 공연까지 즐길 수 있도록 콘텐츠를 결합한 것이다.

현장에는 네이버의 자체 기술도 곳곳에 적용됐다. 방문객은 사전에 등록한 얼굴 정보를 활용하는 네이버페이의 인공지능(AI) 기반 얼굴인식 서비스 '페이스사인'으로 입장할 수 있다. 별도 티켓을 제시하지 않아도 본인 인증이 가능한 방식이다.

브랜드 부스에서는 네이버페이 월렛을 활용한 대체불가능토큰(NFT) 스탬프 투어가 진행됐다. QR코드를 통해 디지털 기념품을 수집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경품 추첨에 참여하는 구조다. 오프라인 결제 단말기 'Npay 커넥트'도 함께 선보였다.

혜택은 행사장 밖 성수 상권으로도 이어졌다. 네이버는 지역 맛집을 소개하는 '맛동여지도'를 운영하고 예약과 방문, 리뷰 작성 등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현장 안내문에는 예약 시 2000원, 방문 완료 시 1000원, 리뷰 작성 시 추가 1000원을 적립하는 혜택이 소개됐다. Npay 커넥트 가맹점에서는 결제 방식에 따른 별도 포인트 적립 혜택도 제공했다.

네이버가 이처럼 다양한 서비스를 한자리에 모은 배경에는 멤버십 경쟁력 강화 전략이 자리한다. 기존 쇼핑 적립과 디지털 콘텐츠 중심의 혜택을 공연과 브랜드 체험으로 확장해 이용자가 네이버 서비스를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심준용 네이버 브랜드익스피리언스 리더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행사 자체가 멤버십 회원분들을 위해 드리는 혜택의 행사"라며 "혜택을 가장 많이 체감할 수 있는 브랜드 파트너들을 중심으로 섭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수를 첫 행사 장소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젊은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많은 브랜드와 팝업스토어가 모이는 장소"라며 "이번 행사를 첫 출발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의 오프라인 실험은 성수동에서 끝나지 않는다. 네이버는 인스파이어 리조트와 체결한 아레나 명명권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공연장에도 자체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KT 그룹 직원들이 10월 30일 KT 구로국사에서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여해 통신 서비스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KT

KT

재난대응 훈련 실시

구로국사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KT가 재난 상황에 대비해 긴급 복구 체계 점검에 나섰다.

KT는 지난달 30일 KT 구로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여해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KT 구로국사에 드론 공격과 비인가자 침입으로 폭발, 화재, 정전이 발생해 유무선 통신 서비스 장애로 이어지는 상황을 가정했다. 현장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군·경찰·소방·한국전력·지방자치단체와 주요 통신사업자 등이 참여했다.

KT는 재난 발생 직후 현장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유관 기관에 전파하고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이후 통신 설비 피해와 서비스 영향을 확인한 뒤, 긴급 복구와 이용자 보호 작업을 수행하는 등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다.

실제 상황에 준해 전원·무선·선로·전화·인터넷·IPTV 등 통신 시설과 서비스의 피해 상황을 파악했으며, 복구나 우회 작업으로 서비스가 다시 제공되도록 조치했다. /조민선 기자

日서 찾는 성장동력… 韓 증권업계, 인수·제휴로 영토 확장

2024년 신NISA로 투자 저변 커져
미래에셋, 산코증권 지분 인수 추진
토스, 日 치어증권 지분 전량 인수



국내 증권업계가 해외 현지 고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CI 각 사·AI로 생성한 이미지

국내 증권업계가 해외 현지 고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데서 나아가 현지 증권사를 인수하거나 금융회사와 제휴해 영업 기반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미래에셋증권과 토스가 잇따라 인수에 나선 일본은 세제 지원을 바탕으로 젊은층부터 고령층까지 투자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시장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29일 미국 자회사를 통해 일본 오카산증권그룹 산하 산코증권 지분 100%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도 30일 해외사업 법인 토스글로벌을 통해 도카이도쿄파이낸셜그룹 산하 치어(CHEER)증권 지분 전량 인수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미래는 자기매매 보강부터…토스는 모바일 증권사 선택

미래에셋증권은 산코증권의 기존 자기매매 사업을 보강한 뒤 개인고객 대상 리테일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기매매는 회사 자금으로 주식·채권 등을 사고팔아 수익을 내는 사업이다. 기존 사업을 강화하고 현지 운영 체계를 정비하면서 개인투자자로 고객층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주식 취득대금은 약 476억원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인수와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해 미국 자회사에 총 120억엔, 약 1006억원을 출자한다. 인도 쉐어칸에 이어 일본에서도 현지 고객과의 접점을 확보해 글로벌 투자상품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연결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SPA 체결은 일본 현지 사업 기반을 확보하고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산코증권 기존 사업을 보강하면서 리테일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토스가 선택한 치어증권은 스마트폰으로 소액 주식거래와 투자신탁 서비스를 제공해온 회사다. 초보 투자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여온 토스의 사업 방향과 접점이 있다. 닛케이가 보도한 인수금액은 약 40억엔, 약 340억원이다.

인수 주체는 토스증권이 아닌 비바리퍼블리카의 싱가포르 소재 해외사업 법인 토스글로벌이다. 토스증권과의 향후 연계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토스 관계자는 "치어증권이 초보 투자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해 와 사업적 지향점이 같다고 판단해 인수를 결정했다"며 "현재 관계 당국의 인허가 등 선행조건 절차가 남아 있어 인수 마무리와 안정적인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령층도 투자시장으로…NISA가 넓힌 고객층

일본 시장의 기회는 투자에 나서는 고객을 확보해 장기적인 거래 관계로 연결하는 데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소액투자비과세제도인 NISA다. 정해진 한도 안에서 전용 계좌로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하면 매매차익과 배당·분배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제도다.

일본은 2024년 신NISA를 도입하면서 비과세 보유기간을 무기한으로 늘렸다. 연간 최대 360만엔, 취득금액 기준 총 1800만엔까지 비과세 투자가 가능하다. 투자자가 세금 부담을 덜고 자산을 오래 운용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투자 저변은 고령층으로도 넓어지고 있다. 일본 금융청의 NISA 계좌 이용 현황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보유한 NISA 계좌는 신NISA 도입 전인 2023년 말 약 720만개에서 올해 6월 말 약 919만개로 늘었다. 2년 반 만에 약 200만개, 28%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모바일에 익숙한 젊은층뿐 아니라 은퇴자산을 운용하는 고객까지 금융회사가 접근할 수 있는 수요층이 넓다는 의미다.

현지 금융회사와 손잡고 고객 접점을 확보하는 방식도 있다. 하나증권은 일본 캐피탈파트너스증권과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해 현지 고객의 한국 주식 거래를 지원한다. 일본 고객이 현지 증권사에 주문하면 하나증권이 국내 매매·결제를 맡는다. 직접 인수와는 달리 제휴사의 고객망에 국내 거래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다.

다만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곧 개별 회사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기존 금융회사와 경쟁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고, 시스템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NISA 이용 확대 역시 각사의 고객 확보 성과로 얼마나 연결될지도 지켜봐야 한다.

미래에셋과 토스의 인수는 모두 거래 종결 전 단계다. 미래에셋은 리테일 사업의 구체적인 방식과 일정을 마련해야 하고, 토스도 인수 이후 신규 서비스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고 치어증권의 현 거래체계나 리더십은 유지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증권사의 글로벌 현지 사업 도전은 고무적이지만, 기반 확보가 실제 영업 확대와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추가적인 검증·투자·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현대제철·롯데케미칼 등 151곳… 거래소, 저PBR 기업 공개

유가증권시장 96곳, 코스닥시장 55곳
맞춤형 PBR 개선 컨설팅 제공 예정

현대제철과 태광산업, 롯데케미칼, 이마트 등이 한국거래소가 처음 공표하는 저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 151곳에 포함됐다.

한국거래소는 2일 유가증권시장 96곳, 코스닥시장 55곳 등 총 151곳을 저PBR 기업으로 선정해 공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1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장기간 저평가된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PBR 기업은 시장과 업종별 PBR 분포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에 따라 기업을 11개 업종으로 구분한 뒤 유가증권시장은 업종별 PBR 하위 25%, 코스닥시장은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 가운데 최근 6개 반기 연속 또는 최근 7개 반기 중 6개 반기 동안 저PBR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선정 대상이다.

이번 명단에는 철강·화학·유통 등 전통 산업을 비롯해 금융·헬스케어·정보기술(IT)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포함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현대제철의 PBR이 0.19배로 집계됐으며 태광산업은 0.23배를 기록했다.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은 0.18배, 롯데쇼핑은 0.17배였다. 이마트와 롯데하이마트도 각각 0.15배로 명단에 포함됐다.

금융업종에서는 한화생명이 0.27배, 흥국화재가 0.20배를 기록했다. 증권사 중에서는 DB증권이 0.33배, 현대차증권이 0.31배로 집계됐다. 이 밖에 영풍(0.17배), 한솔제지(0.23배), 휴스틸(0.19배)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개별 기업의 PBR을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SUN&L이 0.06배로 가장 낮았고, 성창기업지주와 한국전자홀딩스가 각각 0.10배를 기록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앱토크롬이 0.07배로 가장 낮았다. 오션인더블유는 0.09배, SG&G는 0.10배였다. 소재 업종의 무림SP와 자유소비재 업종의 티케이케미칼은 각각 0.12배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산업재가 32곳으로 가장 많았다. 소재 업종이 29곳으로 뒤를 이었으며 정보기술(IT) 23곳, 자유소비재 22곳, 헬스케어 18곳 순이었다. 필수소비재는 15곳, 금융은 5곳, 커뮤니케이션은 4곳이었다. 에너지와 유틸리티, 부동산 업종에서도 각각 1곳이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거래소는 이번 명단 공개를 시작으로 저PBR 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 2027년에는 공표 대상 151곳 모두를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형 PBR 개선 컨설팅을 지원한다. 기업별 저PBR 원인을 분석하고 목표 설정과 개선 계획 수립 등을 돕겠다는 것이다.

기관투자자의 역할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기관투자자가 저PBR 기업에 적극적으로 주주 관여를 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행 점검을 통해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첫 공표를 계기로 저평가 기업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평가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명단 공개 자체가 기업가치 개선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닌 만큼, 기업들이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주주환원 정책을 실제로 이행하는지가 향후 제도의 실효성을 가늠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하은 기자 godhe@



전남 영암군 농촌마을 냉장고 전달식/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농촌마을에 냉장고 지원

NH투자증권은 지난달 30일 영암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영암군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냉장고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행사에는 임철순 NH투자증권 ESG본부장과 우승희 영암군수 등이 참석했다.

냉장고는 영암군 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에 설치돼 주민들의 공동 식사와 식재료 보관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올해 8개 군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농촌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신안·장흥·영덕·거창에 이어 영암이 다섯 번째 지원 지역이며, 나머지 3개 군에 대한 지원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은 지난해 말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바탕으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2019년부터 해당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초기 3년간 농촌 마을회관 등에 인덕션 1263대를 보급했으며, 2022년부터는 매년 냉장고 350여 대를 지원했다. 이 밖에도 농촌 청소년 장학금 지원과 일손 돕기, 농가 숙원사업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임철순 본부장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하고 머무는 생활의 중심인 만큼, 겨울을 앞두고 주민들의 일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촌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네이버페이·토스에 묵힌 돈, 환급 쉬워진다

금감원 Q&A

빅테크 3사 안내·환급 절차 개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토스 등에 돈을 충전해 놓고 사용하지 않은 채 잊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결제나 송금을 위해 미리 충전한 돈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돈이 남아 있다는 사실조차 잊기 쉽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잠들어 있는 선불충전금을 더 쉽게 확인하고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등 빅테크 3개사와 함께 장기 미사용 선불충전금의 안내와 환급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페이·머니형 선불은 일정 금액을 미리 충전한 뒤 여러 가맹점에서 결제하거나 송금할 때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지만, 그만큼 충전한 돈을 잊고 방치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동안에는 선불충전금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부터 3회 이상 안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유효기간이 10년이라면 사실상 약 10년 가까이 별다른 안내를 받지 못할 수도 있었던 셈입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충전하거나 사용한 지 1년 또는 2년 이상 지난 선불충전금을 장기 미사용 선불로 분류합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돈이 있다면 매년 한 차례 이상 잔액과 유효기간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는 네이버톡톡이나 카카오 알림톡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이뤄집니다. 평소 사용하지 않던 페이 서비스에서 알림이 왔다면 남아 있는 충전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환급도 한결 편리해집니다. 이전에는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환급 메뉴를 직접 찾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잔액 안내와 함께 환급 방법도 제공됩니다. 안내받은 환급 메뉴를 이용하면 남아 있는 페이·머니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 안내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메시지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선불충전금 환급을 빌미로 개인정보나 계좌정보를 요구하는 사기 메시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 앱 알림이나 알림톡이 아닌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이메일에서 환급을 이유로 계좌정보 등을 요구한다면 응하지 마세요. 특히 의심스러운 링크를 누르기보다는 해당 페이 서비스의 공식 앱에 직접 접속해 잔액과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간편결제 서비스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잊고 있던 충전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허정윤 기자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본격화… 전국 공모 추진

원자력환경공단, 배제기준 12개 확정
활동단층, 지진 규모 5.5 지역 제외
입지 부적합 지역 사전배제 기틀
연내 '기본조사 후보부지 지도' 계획



경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사. /뉴시스

수십 년간 표류해 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지하연구·중간저장·처분시설) 부지 확보 작업이 관리사업자의 실행 단계에 돌입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고준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확정 기준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후보부지 도출 작업에 착수하면서, 내년 지자체 공모를 향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1986년 원전 부지 내 포화되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부지 확보를 처음 추진한 이래 수많은 주민 반발과 사회적 갈등 속에 번번이 좌절됐다.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만 경주로 겨우 확정됐을 뿐,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은 수십 년간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해 왔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 30일 열린 제9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에서 공단이 제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이 최종 심의·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가 확정한 기준은 배제기준 6개와 조건부 배제기준 6개 등 총 12개로,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의 입지에 부적합하거나 부지조사에 제약있는 지역을 사전에 배제하는데 활용된다.

공단은 이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주요국의 부지선정 사례와 국내 연구결과, 원자력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을 면밀히 분석했다. 아울러 토지이용·개발 관련 법령과 규제 지역을 검토하고 법률 자문을 거쳐 안전성과 부지조사 수행 가능성을 담보했다.

구체적으로 관리시설 건설·운영의 장기 안전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6개 지역은 ▲활동성 단층 8km 이내 지역 ▲리히터규모 5.5 초과 지진 8km 이내 지역 ▲화산활동 지역 ▲석회암 등 불안정 암종 분포지역 ▲천연 지하자원(광산·지하수·온천 등) 분포지역 ▲경주시(중·저준위 방폐장 기소재로 특별법상 제외)가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향후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 신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반면, 운반 여건이나 토지이용 규제 등으로 입지 및 부지조사에 제약이 있는 곳은 조건부 배제기준(6개)으로 분류됐다. 여기에는 ▲해안선 미인접 내륙지역(운반 경로상 해안 지자체 등 협의 시 신청 가능) ▲항공기·군사활동 영향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토지 일시사용 및 형질변경 불가지역 ▲조사 지연 우려지역(세계문화유산·상수원보호구역 등)이 포함됐다. 해당 지자체가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등을 통해 제약을 해소하면, 위원회가 사업 추진 가능성과 소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모 신청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이번 의결로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입지에 부적합한 지역을 사전에 투명하게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확정된 12개 기준을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전면 적용해 올해 말까지 '기본조사 후보부지 지도'를 도출하고 공개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이를 바탕으로 전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를 추진한다.

다만 공단 측은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곧바로 관리시설 부지의 최종 안전성이나 적합성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향후 공모를 거쳐 선정된 대상부지는 지질·지하수 특성 등에 대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단계적으로 거치며 장기 안전성이 철저히 검증될 예정이다.

이진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은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고준위방폐물 관리사업을 안전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송재도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임원장 선임

〈전남대학교 교수〉

2029년 10월 29일까지 3년 임기
에너지 공급망·탄소중립 과제 이행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경연) 신임 원장에 송재도 전남대학교 교수가 선임됐다. 1일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제 397차 이사회에서 제15대 에경연 원장에 송 교수가 선임됐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6년 10월 30일부터 2029년 10월 29일까지 3년이다. 향후 경영 성과와 연구실적 등에 대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평가를 받게 된다.


송재도
제15대 에너지경제연구원장

1970년생인 송 원장은 충암고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공학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학계와 공공 부문에서 에너지 및 탄소중립 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특히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하며 국가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참여했고, 한국전력공사 비상임이사와 한국마케팅관리학회 이사 등을 지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송 원장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와 탄소중립 이행 과제 속에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원전 공론화委, 원전정책 시민참여단 모집

오는 13일까지 국민기초조사 실시
최종 시민참여단 300명 선정 예정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원전 정책 방향을 결정할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을 선정하기 위한 국민기초조사를 10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방식은 휴대전화와 집전화 번호를 무작위로 만들어 거는 방식(RDD)을 채택했으며, 지역·성별·연령대별 인구 비율에 맞춰 응답자를 확보한다. 조사 전화는 주말을 포함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걸려 오며, 위원회가 선정한 전문 조사기관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수행한다.

조사 문항은 지역·성별·연령 등 기본 사항을 비롯해 원전 공론화 인지 여부, 미래 전력 수요와 원전에 대한 생각, 시민참여단 참여 의향 등이다. 위원회는 참여 의향을 밝힌 응답자 가운데 지역·성별·연령대별로 무작위 추첨해 최종 시민참여단 3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숙의자료집과 온라인 학습을 거쳐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 동안 숙의토론에 참여하게 된다.

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조사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전화를 받으면 끝까지 응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응답 내용은 통계 목적으로만 쓰이며,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된다"며 "국민기초조사 결과는 시민참여단의 숙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숙의토론이 끝난 뒤 최종 결과와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국마사회

소방용 드론 등 동원 실전 재난 대응 훈련

한국마사회가 과천소방서와 손잡고 소방용 드론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한 실전형 재난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28일 한국마사회 본관에서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대형화재 등 복합재난은 물론 말 전염병 대응과 도핑검사소 화학물질 유출 사고 등 말산업 특성을 반영한 위기 상황까지 아우르는 다각적인 훈련으로 진행됐다.

훈련은 본관 지하 1층 기계실 가스폭발로 대형화재와 전력·통신 장애가 발생한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다. 초기 상황 전파와 대피 유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현장 대응 및 수습·복구까지 단계별 대응 절차가 점검됐으며, 부서별 임무와 지휘·보고 체계의 실효성 확인에 초점이 맞춰졌다.

아울러 말 전염병 대응훈련 및 도핑검사소 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비 훈련을 병행해 말산업 현장의 특수 위험에 대한 대응 절차를 숙달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지난달 30일 홍의락 가스공사장(왼쪽 세번째) 인천생산기지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홍의락, LNG 하역설비 현장 안전점검

〈한국가스공사 사장〉

취임 이후 첫 현장 이사회

홍의락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현장 이사회를 개최하고 경영 의사결정과 현장 안전관리 연계 강화에 나섰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달 30일 인천생산기지에서 홍의락 사장을 비롯한 이사진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이사회'를 개최하고, LNG 하역설비 안전점검과 현장 직원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이사회는 홍 사장 취임 이후 처음 추진된 현장 중심 이사회 활동으로, 주요 경영 현안을 사업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고 천연가스 생산·공급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이사진은 현장 이사회를 열어 주요 경영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LNG 하역설비 등 핵심 생산시설을 찾아 설비 운영 현황과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LNG 하역 과정의 위험요인과 시설 유지관리 현황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천연가스 생산기지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예방 중심의 관리 방안을 확인했다.

아울러 이사회와 연계한 간담회를 열고, 사장의 경영 철학 공유와 함께 현장의 애로 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가을 산불 대응 총력… 148개 구간 통제

국립공원공단, 내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탐방객 집중 시기를 맞아 국립공원 산불 예방 및 초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

국립공원공단은 11월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45일간을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지정하고 전방위적인 예방 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가을철은 낙엽이 쌓이고 대기가 건조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크며, 특히 국립공원에 연중 가장 많은 탐방객이 몰리는 시기여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공단은 산불 위험이 높은 전국 주요 탐방로 148개 구간(연장 668km)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31일간 출입을 통제한다.

전면 통제되는 곳은 지리산 노고단 고개~장터목 구간 등 총 115개 구간(474km)이며, 33개 구간(194km)은 상황에 맞춰 부분 통제된다. 다만, 나머지 515개 구간(1373km)은 평소와 같이 이용할 수 있으며, 국립공원별 구체적인 통제 탐방로 현황은 공단 누리집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산림 인접 지역의 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흡연·취사 등 산행 중 불법행위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립공원 내 가옥과 사찰에 산불 예방 물자를 지원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현장 감시망에는 인공지능(AI) 산불감시카메라와 열화상 무인기(드론) 등 첨단 기술이 전면 투입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에스앤마일즈가 선택받는 이유

철강·금속 산업 전문성
산업 특성을 이해한 전문 노하우로
최적의 출장·행사 서비스 제공.

해외 네트워크
전 세계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기업 맞춤 일정 설계
목적과 예산에 맞춘 최적의 일정과
프로그램 설계

24시간 지원 서비스
현지 긴급 지원 및 상담 서비스로
안심 비즈니스 지원

현지 운영 지원
숙련된 현지 운영팀이 행사 전 과정
원활하게 관리

기업 맞춤 인센티브 투어

목적과 예산에 최적화된 맞춤형 프로그램



기업 골프 행사
기업의 목적에 맞는 골프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고객사 사은 행사
고객 관계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
로 기획 및 운영을 지원합니다.



해외 워크숍·세미나
항공·호텔·회의·관광까지 원스톱으로
완벽하게 관리합니다.

기획 → 항공 → 호텔 → 현지 운영 → 귀국
ONE STOP 서비스!

2026~27 글로벌 산업 전시회

항공 + 호텔 + 여행자보험 패키지로 편리하게!



01 세계 밸브 산업의 중심
VALVE WORLD EXPO 2026
뒤셀도르프(Düsseldorf) · 독일
2026. 12. 01(화)~12. 03(목)
Messe Düsseldorf
Exhibition Centre
1인 215만원~
3박 4일 기준 / 조건에 따라 변동



02 금속 용접 / 절단 기술 전시회
URBAN STEEL EXPO 2027
뒤셀도르프(Düsseldorf) · 독일
2027. 04. 20(화)~04. 23(금)
Messe Düsseldorf
Exhibition Centre
1인 350만원~
5박 7일 기준 / 조건에 따라 변동



03 주조 / 열처리 / 야금 / 캐스팅
금속분야 최대 국제 전시회
GMTN 2027
뒤셀도르프(Düsseldorf) · 독일
2027. 06. 21(월)~06. 25(금)
Messe Düsseldorf
Exhibition Centre
1인 350만원~
5박 7일 기준 / 조건에 따라 변동

상기 요금은 기준 출발일 및 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항공·호텔 예약 상황에 따라 실제 견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S&Miles 기업전문 여행사

기업 출장 · 인센티브 · MICE **S&Miles와 상담하세요!**

맞춤 기획서 · 견적 무료 컨설팅!

02-3487-2800
smkang@snmiles.com
www.snmiles.com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20

에스앤마일즈 여행사

고흥 우주산단 가시화… 기업 수요 141%, 남해안 벨트 속도

한화에어로 등 11개 기업과 협약
발사장 1단계 공사 공정률 85%
전남광주, 제2우주센터 유치 목표


전남광주시가 추진해 온 우주산업 기반 확충이 실행 단계로 접어든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이 국토교통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전남광주시가 추진해 온 우주산업 기반 확충이 실행 단계로 접어든다. 민간 발사장과 시험·인증시설에 기업 생산·연구 공간까지 연계되는 산업 기반이 구체화되면서 제2우주센터 유치와 남해안 우주항공산업벨트 구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 동력은 기업들의 입주 수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11개 기업은 2024년 입주협약을 체결했으며 비츠로넥스텍과 이노스페이스, 세일엑스, 더블유피, 우리별, 동아알루미늄, 파루,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우나스텔라, 중앙이엠씨가 참여했다. 국방연구시설과 협약기업 부지에 더해 입주의향서나 업무협약을 제출한 기업들의 수요까지 반영하면 산업시설용지 125만㎡를 기준으로 수요가 141%에 이른다.

우주발사체 기업들이 발사장과 가까운 곳에 생산시설을 두려는 배경에는 운송 위험과 비용 문제가 있다. 발사체를 장거리 이동하면 운송 과정에서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물류비 부담도 늘어난다. 국가 주도에서 민간 기업 중심으로 산업의 무게추가 이동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나로우주센터 인근을 입지 후보로 삼는 이유다.

산업단지 주변에서는 발사와 시험평가를 뒷받침할 기반시설도 구축되고 있다. 국비 1206억원이 투입되는 민간 발사장은 고체연료 발사장과 이송로를 포함한 1단계 공사가 공정률 85%를 기록했으며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액체 발사장과 조립시험시설은 2027년 11월 착공해 2030년 12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발사체 개발부터 시험평가와 인증까지 지원하는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는 사업비 274억원 규모로 기본설계를 마쳤다. 센터에는 금속 3D프린터 등 생산 지원 장비 4종과 진동시험기·음향챔버를 포함한 성능평가 장비 6종 등 모두 10종이 들어선다. 2028년부터는 600억원 규모의 운영단계 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국가산업단지는 이 같은 발사·시험 기반을 실제 생산과 연구 활동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나로우주센터와 민간 발사장, 국방우주시험센터 사이에 제조·연구 거점이 조성되면 기업들은 발사체 개발과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한 권역에서 활용할 수 있다. 관련 인프라가 연계될수록 고흥이 우주발사체 산업의 집적지로 성장할 가능성도 커진다.

이 같은 여건은 제2우주센터 입지 선정 과정에서도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2028년부터 2034년까지 발사시설과 재사용 착륙시설 등을 구축하는 제2우주센터 사업에는 전남광주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응모해 경쟁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발사운용성뿐 아니라 발사 인프라 구축 여건과 입지·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하반기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남해안 지역의 우주항공산업 협력도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우주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에는 남해안 우주항공산업벨트 조성이 포함돼 있다. 전남광주시와 경남도는 지난 26일 '남해안권 상생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주항공산업을 비롯한 국가 핵심 산업기반을 연계하기로 했다.

양 지역은 고흥의 우주발사체 기반과 사천·진주의 위성 제조·연구 역량을 연결해 남해안 산업벨트를 육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배후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유치와 전문인력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흥(전남광주)=양수녕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충남도, 자율주행 심야버스 도입

고속버스 연계해 이동 편의 향상
내년 1월 31일까지 시범 운행

충남도가 내포신도시에서 운전대가 없는 9인승 자율주행 심야버스를 선보인다. 야간 고속버스 이용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심야시간대 대중교통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검증에 나선다.

충남도는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내포신도시 자율주행 시범사업'의 하나로 자율주행 심야버스 1대를 시범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투입되는 차량은 기존 내포신도시 자율주행 순환버스와 달리 운전석과 운전대가 없는 9인승 버스다. 정해진 구간에서 차량 스스로 주행을 수행하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갖췄다.

다만 안전을 위해 시험운전자가 탑승하며, 비상 상황에서는 수동운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운행 노선은 내포신도시 환승센터를 출발해 경남아너스빌, 지형놀이공원, 자경마을삼거리, 내포신도시 남광장, 삽교읍 주민복합지원센터, 이지더원아파트를 연결하는 총 6㎞ 구간이다.

운행은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3일, 하루 4회 실시한다. 내포신도시 환승센터에 도착하는 하행선 고속버스와 연계해 오후 8시 40분, 9시 35분, 10시 35분, 11시 35분에 각각 출발한다.

도는 이번 시범 운행을 통해 야간 조명이 부족한 환경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과 운행 성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고속버스 도착 시간과의 연계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용객 수요와 승하차 유형 등 운영 자료를 수집한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자작나무숲.

영양 자작나무숲, 가을 단풍 명소로 주목

데크길 따라 만나는 단풍 절경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자작나무숲이 하얀 나무줄기와 붉고 노란 단풍이 어우러진 가을 풍경으로 나들이객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목재 데크길을 따라 숲과 계곡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어 자연 속에서 여유를 찾으려는 방문객들에게 계절의 정취를 전하고 있다.

하늘을 향해 뻗은 자작나무의 흰 수피는 주변의 단풍과 선명한 대비를 이루며 가을 숲 특유의 색감을 드러낸다. 노란 잎과 붉은 단풍이 숲 곳곳에 어우러지면서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영양의 산림 경관을 보여준다.

목재 데크길은 방문객들이 자연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산책 코스다. 길 주변의 단풍과 계곡 풍경이 걷는 재미를 더하며 곳곳에 마련된 포토존은 가족과 연인·친구들이 방문의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경과원, 중기 사이버 위협 선제 대응

내달 11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보안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사이버 위협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에 나선다.

경과원은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점 점검 무료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12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랜섬웨어 등 사이버 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전문인력과 보안 예산이 부족해 외부에 노출된 정보기술(IT) 자산과 보안 취약점을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경과원은 기업의 홈페이지·서버·이메일 등 외부에 노출된 IT 자산을 확인하고, 보안 취약점과 다크웹 내 유출정보를 탐지·분석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점검 결과는 위험도별 분석 보고서로 제공해 기업이 보안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경북, APEC 개최 1년 만에 관광 '활기'

외국인 관광객 15% 증가

경북문화관광공사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1주년을 맞아 관광 인프라 확충과 민간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경북의 글로벌 관광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공사가 한국관광데이터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경북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은 465만6000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경주는 116만2000여 명으로 19.6%, 안동은 27만8000여 명으로 34.5% 늘었다.

공사는 지난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비 등 150억원을 투입해 보문관광단지 야간경관을 개선했다. 보문호반광장에 APEC 상징조형물과 미디어아트를 조성하고 산책로와 주요 교량의 경관조명을 정비했다.

민간투자 유치도 추진했다. 지난 1년간 보문단지 내 10개 기업과 5000억원 규모의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전국 최초로 복합시설지구를 도입했다.

/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지역 이모저모

포항시

지역상품권 5% 추가 환급

포항시가 이달 15일까지 '2026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카드형·모바일 포항사랑상품권 결제액의 5%를 추가로 돌려준다.

지역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이번 후캐시백 행사에는 국비 6억 3,600만 원이 투입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10% 선할인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최대 15%, 착한가격업소에서는 기존 캐시백 5%를 더해 최대 2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9월 도입한 무혜택 충전금 결제에도 5% 후캐시백이 적용되지만 정책수당은 제외된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경북교육청

영재교육대상자 3000명 선발

경북교육청은 미래 사회를 이끌 창의융합형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2027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전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형은 도내 초·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115개 영재교육기관에서 약 3,0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 분야는 수학·과학·정보·인문사회·인공지능(AI)·융합·예술 등이다.

선발은 교육 기회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전형, 사회통합전형, 학교 밖 청소년 전형으로 나눠 진행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참여 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부산시설공단

어린이대공원 '숲 체험' 운영

부산시설공단(이하 공단)이 오는 3일부터 24일까지 매주 화요일 어린이대공원 숲길과 명상숲에서 '가을숲 체험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걷기와 명상, 스트레칭, 자연물을 활용한 만들기 체험을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4회 열리며 어린이대공원 이용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회차별 참여 인원은 15명으로, 사전 예약과 현장 접수로 신청받는다.

3일 '만나는 숲'에서는 참여자들이 서로 친밀감을 쌓은 뒤 압화를 활용한 티코스트 만들기, 숲속 찻집, 싱잉볼 명상에 참여한다.

/부산=이정민 기자 metrobusan6@

인천시

'ICNX 2026' 송도서 내일 개최

인천시가 첨단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 콘퍼런스 'ICNX 2026'을 개최한다.

시는 3일부터 4일까지 송도컨벤시아 그랜드볼룸 A·B홀에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주최하고 (재)인천테크노파크가 주관하며, 슬로건은 '엔터테크의 연결, 비즈니스의 확장'이다.

B2B 20개사와 B2C 17개사가 참여해 첨단 미디어 기술과 콘텐츠를 선보인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에이피알, 신사업 성장동력 확보… 아모레퍼시픽은 내실 강화

K-뷰티 두 강자, 사업 전략 차별화
에이피알, 3분기 매출 7731억 '최대'
디바이스 둔화에 미용의료 속도
아모레퍼시픽, 영업익 25.4% 증가
스킨케어·더마 앞세워 수익성 개선

전통 K뷰티 기업 아모레퍼시픽이 스킨케어 브랜드에 더마, 헤어 등 특화 브랜드를 더해 10%대 영업이익률을 회복하며 기초 체력을 입증했다. 반면 신흥 강자 에이피알은 화장품 흥행으로 연 매출 3조원 시대를 열면서도 주력 디바이스의 성장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미용의료 영역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K뷰티 글로벌 확화라는 공통 분모 위에서도 두 기업 전략은 차별화된 모습이다.

1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홀딩스는 손익 구조에서 체질 개선을 이뤄냈다. 아모레퍼시픽홀딩스는 2026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2073억원, 영업이익 130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9%, 24.7% 증가한 실적을 올렸다. 영업이익률도 9.4%에서 10.8%로 1.4%p 상승했다.



'라네즈X부츠(Boots)' 밸런스모드 캠페인.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간 주력 계열사 아모레퍼시픽의 매출은 1조1295억원, 영업이익은 1152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1.1%, 영업이익은 25.4% 커졌다. 영업이익률은 10.2%로 3개 분기 연속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

세부 손익을 살펴보면 매출총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5% 늘어난 8214억원이다. 매출원가율을 28.2%에서 27.3%로 0.9%p 낮추고 매출총이익률은 72.7%까지 높였다. 글로벌 디지털 캠페인 투자에 따라 광고판촉비 1577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0.2%p 확대됐지만 기타비용 효율화로 판매관리비율을 62.5%로 전년 동기 대비 0.3%p 개선했다.

아울러 국내 사업의 3분기 매출은 6205억원, 영업이익은 84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 42%의 성장세를 보였다.



에이피알 메디큐브 스킨부스터 에이지알과 에이지알 플러스 G 제품.

럭셔리 브랜드 설화수가 백화점 수요에 대응했고 스킨케어 브랜드 라네즈, 더마 브랜드 에스트라 등이 방한 외국인 소비자층을 공략했다.

해외 사업 3분기 매출은 4955억원, 영업이익은 485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 14% 올랐다. 미주,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일본을 비롯한 기타 아시아 등 세계 전역에서의 고른 성장이 주효했다. 중국 본토, 홍콩, 대만 등을 아우르는 중화권에 대한 의존도는 줄이면서도 샴푸 브랜드 려 등의 신제품을 지속 선보여 K뷰티 경험을 확산시켰다.

한편 에이피알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바탕으로 한 외형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7731억원, 영업이익 1606억원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에이피알은 오는 4분기 약 7300억~7500억원 수준의 분기 매출을 전망하며 올해 연간 매출 3조원 초과 달성 목표치를 유지하겠다고 자신했다.

에이피알은 압도적인 제품 마진력을 강점으로 갖췄다. 2026년 상반기 기준, 누적 매출 1조3609억원 중 매출원가는 2962억원으로 매출원가율은 21.8%에 불과하다. 매출총이익은 1조647억원으로 매출총이익률이 78.2%에 달한다.

다만 에이피알 정체성이자 주요 사업인 '뷰티 디바이스' 부문의 성장 동력은 둔화세를 겪고 있다. 뷰티 디바이스 매출은 2026년 1분기 1327억원, 2분기 1119억원, 3분기 847억원 등으로 감소했다. 디바이스가 화장품 같은 소비재처럼 반복 구매 가능한 품목이 아닌 데다 북미·유럽 시장 내 침투 속도가 소비재보다 느려 프로모션 유무에 따른 매출 변동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에이피알은 미용의료 시장에서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진다는 복안이다. 올해 안에 국내에서 고강도 집속 초음파(HIFU) 기기를 공개할 예정으로 현재 의료진들과 협력을 논의 중이다. 오는 2027년 중하순 출시를 목표로 하는 고주파 제품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인증 절차를 추진한다.

앞서 스킨부스터 사업도 본격화했다. 폴리뉴클레오타이드(PN) 기반 피하주입형 2종을 국내에서 자체 생산, 이달 칠레를 시작으로 해외에 우선 공급한다. 국내 사업 계획은 오는 2028년으로 제시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쿠팡, 900여개 브랜드 참여 '더블일레븐'

중국·홍콩 직구 상품 1만7000여개
11일까지 매일 오전 7시 특가 상품 공개
할인 쿠폰에 와우회원 무료배송 혜택

쿠팡은 1일부터 11일까지 로켓직구 중국·홍콩 스토어의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더블일레븐' 행사를 진행한다. 가전디지털, 패션, 뷰티, 식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브랜드가 참여한다.

'더블일레븐'은 중국의 대형 쇼핑 행사인 '광군제(11월 11일)'를 모티브로 리뉴얼한 로켓직구 행사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확대된 900여 개 브랜드 제품을 선보인다. 앞으로 매년 11월 더블일레븐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올해 행사 기간은 11일로 지난해(9일)보다 이틀 늘어났다. 샥즈, 로지텍, 오즈웨어어그, 바시커피, 라로슈포제, 스탠리 등 브랜드 상품 1만7000여 개를 선보인다.

행사 기간 매일 오전 7시에 새로운 대표 상품 9개를 공개한다. 코닥 픽스프로 디지털 카메라, 스타벅스 캡슐 커피, 메이크업포에버 파우더, 제니베이커리 믹스 쿠키, 레노버 샤오신 패드 프로 등이 대표적이다. 매일 달라지는 '오픈런딜'에서는 한정 수량 상품을 2~4개씩 선보인다.

'브랜드딜'에서는 브랜드별 할인 상품을, 카테고리별 '랭킹딜'에서는 인기 상품을 선보인다.

특별관도 마련했다. 'SNS 핫 아이템'관에서는 속눈썹 고데기 등 뷰티 기기부터 실내 운동기구, 무드등 등을 판매한다. '귀염뽀짝 캐릭터샵'에서는 헬로키티 담요, 시나모롤 팀블러, 쿠로미 밥공기 등 산리오 캐릭터 상품을 선보인다.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구매 금액에 따라 할인 쿠폰이 지급되며, 적용 대상 상품은 행사 페이지 내 '쿠폰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와우회원은 무료배송 혜택과 함께 주문 후 평균 3~5일 이내에 상품을 받아볼 수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현대홈쇼핑, 우수고객 멤버십 개편 혜택 확대

3일부터 매달 5% 자동 할인 적용

현대홈쇼핑은 구매 빈도와 금액이 높은 우수고객 대상 멤버십 제도를 개편해 고객 혜택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개편 내용은 오는 3일부터 적용되며 대상 등급은 최근 6개월 내 10회 이상 구매하면서 구매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탑클래스'와 5회 이상 구매하면서 구매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다이아몬드', 3회 이상 구매하면서 구매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플래티넘' 등이다.

먼저, 전체 멤버십 고객에게 매달 5% 할인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3000원·5000원 정액 할인권 등으로 혜택이 복잡하게 나뉘고 고객이 결제할 때마다 원하는 할인권을 선택해야 하는 방식이었지만, 결제 시 5% 자동 할인으로 편의성을 높인 것이다. 월 할인 한도는 탑클래스가 5만원, 다이아몬드가 4만원, 플래티넘이 3만원으로 기존보다 최대 1만9000원 높아졌다. 또한 현대홈쇼핑 공식 온라인몰인 현대H몰 안에서 멤버십 고객만 이용할 수 있는 'VIP 라운지'와 '시크릿쇼라' 등 전용 서비스의 상품과 콘텐츠를 강화한다. VIP 라운지는 다양한 상품을 정가 대비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는데, 이달부터 상품 수를 늘려 현재 1500여 개에서 연말까지 두 배 이상 늘릴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롯데마트, '로봇 태권브이' 50주년 팝업

김포공항·수원·서울역점 순차 운영
기념 피규어·달력 등 상품 45종 판매

롯데마트 토이저러스는 로봇 캐릭터 '로봇 태권브이' 탄생 50주년을 기념해 김포공항점, 수원점, 제타플렉스 서울역점에서 릴레이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오는 4일까지 롯데마트 김포공항점에서 진행되며, 이어 6일부터 19일까지 롯데마트 수원점에서, 21일부터 27일까지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이번 팝업은 국산 캐릭터 지식재산권(IP)의 가치를 알리고 고객들이 로봇 태권브이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기존 팬들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되새기는 기회를, 태권브이를 새롭게 접하는 고객에게는 캐릭터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팝업스토어에서는 로봇 태권브이 탄생 50주년을 기념해 '태권브이 50주년 피규어', '태권브이 2027 달력', '태권브이 마우스 패드' 등 상품 45종을 판매한다. 포토월과 전시 쇼케이스도 함께 운영한다.



지난달 30일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롯데마트 김포공항점에서 '로봇 태권브이' 관련 상품을 구경하는 고객들의 모습. /롯데쇼핑

롯데마트 토이저러스는 이번 릴레이 팝업스토어를 통해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캐릭터 콘텐츠를 선보이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즐길 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세븐일레븐

그릭요거트 인기 쑥쑥 '요즘' 협업 디저트 2종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프리미엄 요거트 브랜드 '요즘(YOZM)'과 손잡고 디저트 상품 2종을 선보였다고 1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헬시플레저 및 프로바이오틱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요거트 시장 규모도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마켓어스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세계 요거트 시장 규모는 약 1149억 달러(약 158조원)에서 2034년 약 1872억 달러(약 258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그릭요거트는 전체 판매량의 32.8%를 차지하며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풍부한 질감과 높은 단백질 함량 등을 바탕으로 그릭요거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떠먹는 요거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다.

/김서현 기자 seoh@

스타벅스, 인기 조각 케이크 홀케이크로 선봬

모찌 바스크·보늬밤 몽블랑 등 4종

스타벅스 코리아가 연말을 앞두고 다양한 맛과 식감을 살린 홀케이크 4종을 출시했다. 매장에서 인기를 얻은 조각 케이크를 홀케이크로 확대해 연말 케이크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신제품은 ▲모찌 품은 바스크 치즈 케이크 ▲보늬밤 몽블랑 치즈 케이크 ▲진한 얼그레이 카라멜 넛츠 케이크 ▲티라미수 크레이프 케이크 등 4종이다.

'모찌 품은 바스크 치즈 케이크'는 지난 6월 출시 이후 40만개 이상 판매된 '모찌 쏙 바스크 치즈 케이크'를 홀케이크로 구현한 제품이다. 진한 치즈 풍미에 모찌를 더해 부드러움과 쫄깃한 식감을 함께 살렸다.

'보늬밤 몽블랑 치즈 케이크'는 지난 9월 말 가을 프로모션 기간 선보인 몽블랑 치즈 케이크의 홀케이크 버전이다. 밤 풍미의 치즈 케이크에 몽블랑 크림과 보늬밤을 올렸다. '진한 얼그레이 카라멜 넛츠 케이크'는 얼 그레이 시트와 마스카포네 크림에 캔디드 넛츠를 더했으며, '티라미수 크레이프 케이크'는 커피 시트와 마스카포네 치즈 크림, 모카 크레이프를 층층이 쌓아 완성했다.


스타벅스 홀케이크 4종. /스타벅스 코리아

홀케이크는 스타벅스 공식 앱의 홀케이크 예약 서비스를 통해 주문할 수 있다. 고객이 수령 날짜와 매장을 지정하면 해당 매장에서 제품을 받을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마블·포켓몬 덕후 잡아라"… 유통가, 서브컬처 행사 전면에

2030 넘어 40대까지 연령 다양화
팝업·체험·공연 결합해 고객 확보
신세계百, 캐릭터·IP 매출 2배↑
아이파크몰, 코스프레·공연 마련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1층 오픈스테이지 팝업 전경. /신세계

유통업계가 '오타쿠' 손님 모시기에 나섰다. 캐릭터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상품이 높은 매출 성장세를 보이면서 캐릭터 협업은 유통가의 주요 마케팅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오프라인 유통채널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애니메이션과 게임, 코스프레 등 서브컬처 문화를 전면에 내세운 대규모 행사로 마니아 고객층 확보에 나서고 있다.

1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백화점과 복합쇼핑몰을 중심으로 서브컬처 팝업스토어와 체험형 행사가 확대되고 있다. 과거 일부 마니아층의 취미로 여겨졌던 서브컬처가 구매력을 갖춘 소비문화로 주목받으면서 오프라인 점포의 집객 수단으로 활용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캐릭터 IP의 매출 파급력이 있다. 세븐일레븐의 올해 1~9월 굿즈 포함 상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품 수도 346종에서 491종으로 약 42% 늘었다. 구매 고객 중 여성 비중은 75%였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34.2%로 가장 많았다. 40대는 28.2%, 20대는 27.1%로, 20·30대가 전체의 61.3%를 차지했다. 한정판이나 수집형 굿즈를 앞세운 상품이 성인 소비층의 구매를 이끌고 있는 셈이다.

신세계백화점에서도 올해 1~9월 캐릭터·IP 콘텐츠 관련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캐릭터 소비도 성인층으로 확대되고 있다.

캐릭터 IP의 상품성이 확인되면서 유통업계는 굿즈 판매를 넘어 서브컬처 문화 자체를 매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작품별 팬덤이 선호하는 한정 상품과 공연·체험을 결합해 방문 수요를 높이는 방식이다. 캐릭터 이미지가 들어간 상품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팬들이 작품의 세계관을 직접 경험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3일까지 강남점 센트럴시티 1층 오픈스테이지에서 '블로키X하비소울 두근두근 캐릭터 페스타'를 진행한다. 완구·피규어 브랜드 블로키와 캐릭터 굿즈 전문숍 하비소울이 참여해 약 950종의 상품을 선보인다.

마블, 스타워즈, 포켓몬스터 등 대중적인 IP뿐 아니라 나루토, 하츠네 미쿠 등 일본 애니메이션·게임 팬덤을 겨냥한 상품도 판매한다. 강남점 팝업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블로키 하츠네 미쿠 스트로베리 쇼트케이크 한정판'과 '블로키 에반게리온 액션에디션 0·2호기 TV판' 신상품도 마련했다. 이번 팝업에는 50여 개 글로벌 IP가 참여한다. 캐릭터 포토존과 대형 입체 피규어, 프라모델 전시 공간도 운영한다.

앞서 신세계백화점은 일본 만화잡지 '소년 점프'의 캐릭터 굿즈를 판매하는 점프샵 팝업스토어를 열어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주술회전 등의 상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인기 캐릭터와 팬덤 기반 콘텐츠는 젊은 고객들이 백화점을 찾는 새로운 이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복합쇼핑몰은 서브컬처 문화를 주제로 대규모 축제까지 개최하기도 했다. HDC 아이파크몰은 지난달 2~11일 용산점에서 '아이파크몰 덕후 페스티벌'을 열었다. '덕후들의 성지'로 불려온 쇼핑몰이 '덕후'를 행사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행사는 코스프레와 오타게·DJ 공연, '프로젝트 세카이' 버스킹, 라이브 아이돌 공연, 덕후마켓과 카드쇼 등으로 구성됐다. 주술회전, 봇치더락! 등 애니메이션 IP를 활용한 팝업과 포토존도 운영했다. 피규어와 캐릭터 상품, 레트로 장난감 등을 판매하는 덕후마켓도 마련했다. 코스프레 의상과 구매 상품 등을 맡길 수 있는 물품보관소도 별도로 설치했다.

김윤호 아이파크몰 영업본부장(이사)은 "그동안 아이파크몰을 두고 '덕후들의 성지', '덕후 메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아이파크몰이 가진 덕후 콘텐츠를 제대로 보여드리자는 생각에서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인벤티지랩, 초고농도 피하주사 기술 공개

미국 'PODD 2026'서 성과 발표
균일성 바탕, 25G 주사바늘 주입



인벤티지랩이 지난 29일(현지 시각)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2026 PODD'에서 자사 IVL-BioFluidic® 핵심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약물전달 플랫폼 기업 인벤티지랩은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글로벌 약물전달 학회 'PODD 2026'에서 초고농도 바이오의약품 피하주사 제형 플랫폼 'IVL-BioFluidic'의 핵심 연구성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인벤티지랩은 현지시간 29일 발표에서 항체와 항체약물접합체(ADC)의 입자화 이후 구조·기능 분석, 피하 투여 후 약동학(PK), 안정성, 고농도 현탁액의 주사 용이성 관련 데이터를 공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입자화한 바이오의약품의 체내 방출·흡수 양상을 확인한 비임상 약물동태학(PK) 결과다. 인벤티지랩은 오리지널 항체의약품들에 대해 IVL-BioFluidic 플랫폼 기술을 적용하여 입자화를 모두 성공적으로 완성했으며, 재용해한 샘플에서도 대조약과 구조적·기능적 차이가 거의 없이 유효성 및 안정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입자화된 제형을 현탁하여 25G 주사침으로 동물에 피하투여 했으며, 약물의 흡수 및 분포가 약동학적으로 차이점 없이 동등하게 구현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발표로 인벤티지랩의 바이오의약품 초고농축 입자화 제조 및 개발 역량을 입증하였으며 많은 글로벌 제약사 전문가들로부터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

이와 더불어 특허 권리 확보에도 더욱 집중하고 있다. 인벤티지랩은 2024년부터 관련 특허와 자유실시(FTO) 분석을 진행하고 최근 국제특허출원(PCT)을 완료했다. 기존 특허를 고려한 독자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미세유체 제조방법과 균일한 입자 특성을 활용한 제형을 함께 보호하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인벤티지랩은 플랫폼 공개 이후 국내외 파트너사와 물질이전계약(MTA) 6건을 체결해 기술 적용성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PODD에서도 주요 글로벌 빅파마의 후보물질 평가 및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삼바에피스, 키트루다 복제약 美 허가 도전

바이오시밀러 'SB27' 품목허가 신청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후보물질 'SB27'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SB27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키트루다는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 MSD가 개발한 면역항암제로, 지난해 글로벌 매출 약 46조원(317억 달러)에 달하는 전 세계 1위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키트루다는 면역관문수용체인 PD-1에 결합해 암세포의 면역 회피를 억제함으로써, 인체 면역체계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도와 다양한 암종에서 폭넓은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SB27의 품목허가 신청 대상 적응증은 흑색종, 비소세포폐암, 두경부암 등 총 18개의 질환이 포함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024년부터 글로벌 4개국 16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1상과, 글로벌 14개국 55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3상을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동등성을 확인한 바 있으며, 해당 임상시험을 모두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상의학본부장 신동훈 부사장은 "SB27 미국 품목허가 심사 과정에서 연구개발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하고, 면역항암제 분야에서 바이오시밀러를 통한 환자들의 치료 옵션 확대 및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8월 국내 최초로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SB27 품목허가를 신청하며 국내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개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바 있다.

/이세경 기자

LG 프라엘, 피부과 전문의와 홈 뷰티 혁신

피부과학 자문단 발족

LG생활건강의 럭셔리 K뷰티테크 리더 디바이스 브랜드 'LG 프라엘'이 홈 뷰티 시장을 정조준하면서도 피부과 수준으로 제품 전문성을 높인다. 의학적 검증을 거친 가정용 제품을 개발해 뷰티 영역에 최적화한 효능과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LG생활건강은 피부과 현장에서 평균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의료진과 협력해 '피부과학 자문단'을 공식 발족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자문단은 LG프라엘 디바이스에 적용된 기술과 피부 작용 기전을 정밀 분석해 메디컬 기반의 홈 뷰티 솔루션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리을 피부과에서 첫 연구회도 열렸다. 자문단과 LG생활건강 뷰티연구소 정의택 담당을 포함한 연구진은 차세대 홈 뷰티 기기를 위한 피부 과학적 접근법, 소비자 피부 고민을 해결하는 브랜드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이날 연구회에 참석한 대한미용성형레이저학회 소속 나공찬 원장은 "많은 고객들이 피부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만족스러운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며 "집에서도 안심하고 전문적인 관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홈 케어 관련 자문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유한양행·베링거인겔하임, 헬스케어 협력

신약 연구 협업 등 관계 격상

유한양행이 글로벌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과 16년간 이어온 의약품 공동 판매 협력을 디지털 헬스케어 및 R&D, 보건의료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차세대 파트너십으로 확대한다. 글로벌 혁신 포트폴리오와 국내 영업·R&D 인프라를 결합해 중장기 헬스케어 주도권을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유한양행은 한국베링거인겔하임과 '헬스케어 혁신을 촉진하고 국내 보건의료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2010년 고혈압 치료제 트윈스타를 시작으로 당뇨병 치료제 트라젠타, 자디앙 등 대형 품목의 국내 판매 및 공급을 협업해 왔다. 기존 만성질환에서 최근 뇌혈관질환으로 상호 신뢰와 사업을 넓힌 데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포괄적 헬스케어 혁신 동맹으로 관계를 격상했다.

특히 ▲기존 사업을 넘어선 헬스케어 혁신 및 생태계 발전 ▲글로벌 및 국내 전문성을 결합한 환자 치료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생태계 조성 및 환자 가치 증진 등 3대 전략 축을 중심으로 협력을 다각화한다.

/이청하 기자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은?

2026 뉴테크놀로지 포럼

2026년 11월 18일(수) 오후2시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행사개요

행 사 명 22026 뉴테크놀로지 포럼
주 제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은?
일 시 2026년 11월 18일(수) 14:00~17:00
장 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주 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등 록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문 의 2026 뉴테크놀로지 포럼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2시 30분 이후에는 행사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연사 소개



이경전
- 경희대학교 교수
- 한국AI서비스학회장



김지섭
- 뤼튼테크놀로지스 이사



한영섭
- LG유플러스 AI R&D랩장



박기철
- KT IT부문 서비스플랫폼담당 상무



현창호
- SK텔레콤 엔터프라이즈 기술지원팀장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개막식	14:00~14:20	〈축사〉 **이우용** 한국SW · ICT총연합회 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4:50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 & 한국AI서비스학회장 : 업종별 AI/로봇 활용 방안과 전망
강연	14:50~15:20	**김지섭** 뤼튼테크놀로지스 이사 : AI 전환의 허와 실
	15:20~15:50	**한영섭** LG유플러스 AI R&D랩장 : AI가 이끄는 기술/산업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기회(AX)
	15:50~16:20	**박기철** KT IT부문 서비스플랫폼담당 상무 : 산업현장 AI적용사례와 변화 트랜드
	16:20~16:50	**현창호** SK텔레콤 엔터프라이즈 기술지원팀팀장 :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에서의 AX의 역할과 의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metro · metro경제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오티즘 레이스' 참여

하나금융그룹은 지난달 31일 자폐성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포용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달리기 캠페인 '2026 오티즘 레이스(AUTISM RACE)'에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 이은형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둘째줄 왼쪽 세번째)이 김예지 국회의원 및 그룹 임직원 가족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애경산업, '대한민국 영케어러 위크 기념행사' 후원

애경산업은 '제1회 대한민국 영케어러 위크 추진 협의회'에 기업 최초로 참여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제1회 대한민국 영케어러 위크 기념행사' 후원 전달식에서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왼쪽부터), 애경산업 김정필 지속가능경영부문장, 보건복지부 현수엽 등 주요 관계자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애경산업



한국 노보-고려대 안암병원, 글로벌 임상 '맞손'

한국 노보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과 국내 만성질환 환자들의 글로벌 임상시험 참여 기회 확대 및 환자 중심 혁신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캐스퍼 로세유 포울센 한국 노보 대표(오른쪽)와 한승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왼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 노보



농협중앙회, 임직원 소액기부 캠페인 기부금 전달

농협중앙회는 지난 29일 경기도 포천시청에서 '임직원 소액기부 캠페인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환아 가정 2곳에 1800만원의 치료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광수 농협중앙회 농업농촌지원본부장(오른쪽)과 백영현 포천시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부산항만공사-부산혈액원, 사랑의 헌혈 약정식

부산항만공사는 지난달 30일 본사 사옥에서 부산혈액원과 '사랑의 헌혈 약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에 따라 부산항만공사는 혈액난 해소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엄기용 부산항만공사 ESG경영실장(왼쪽)과 류춘배 부산혈액원 원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삼성전자, '삼성 크루' 1기 출범… AI 가전 알린다

AI가전 실제 사용경험 공유
"소비자와 접점 넓혀 나갈 것"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가전의 실제 사용 경험을 공유하는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한다.

삼성전자는 AI 가전 크리에이터 프로그램 '삼성 크루(Samsung Crew)' 1기를 출범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달 30일 서울 청담 CGV 더 프라이빗 시네마에서 삼성 크루 1기 발대식을 열고 향후 활동 계획을 공유했다. 행사에서는 크리에이터별 환영 영상과 포토존을 마련하고 참가자 간 교류의 시간도 진행했다.

삼성 크루 1기는 약 30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3개월간 활동한다. 이들은 각자의 주거 공간과 생활 방식을 반영한 콘텐츠를 제작해 삼성 AI 가전의 기능과 활용법을 소개한다.

콘텐츠 범위도 제품 사용 후기에 그치지 않는다. 배송과 전문 설치, 사후관리 등 구매부터 사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경험한 서비스를 함께 다룬다. 제작된 콘텐츠는 각 크리에이터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통해 공개된다.



삼성전자가 AI 가전 크리에이터 '삼성 크루(Samsung Crew)' 1기 발대식. /삼성전자

박정미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삼성 AI 가전을 오래 아껴 쓰고 신뢰해 주신 크리에이터들의 진솔한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가 삼성 AI 가전이 일상에 선사하는 편리함과 가치에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삼성 크루를 지속 발전시켜 더 다양한 플랫폼에서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LG전자, '트롬 AI 워시콤보 캠페인' 올해의 브랜드상

광고학회 선정… K-팝 접목 마케팅

LG전자가 K-팝 문화를 접목한 가전 마케팅으로 브랜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LG전자는 트롬 AI 워시콤보 캠페인으로 한국광고학회가 선정하는 '2026 올해의 브랜드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광고학회는 1989년 설립된 광고 분야 학술단체로, 2006년부터 매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브랜드 자산 구축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성과를 거둔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에 수상한 LG전자 AI 워시콤보 캠페인은 K-팝 문화를 활용해 소비자를 브랜드 팬으로 유입시키고 자발적인 팬덤 확산을 이끌어내는 이른바 '트로이 목마' 전략을 적용했다. 소비자의 관심을 끌어내는 동시에 제품 판매 증가에도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달 30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한국광고학회 '2026 올해의 브랜드상' 시상식에서 (왼쪽부터)성용준 한국광고학회 회장, 김경미 LG전자 한국영업커뮤니케이션2팀 책임이 AI 워시콤보 캠페인 수상을 기념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G전자

시상식은 지난달 30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렸으며, LG전자 한국영업커뮤니케이션2팀 김경미 책임과 황수빈 선임 등 캠페인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오성택 LG전자 한국마케팅커뮤니케이션담당 상무는 "LG전자 제품에 대한 대중의 신뢰 위에 첨단의 이미지를 더하고자 정교하게 설계된 캠페인이 여러 방면에서 성과를 거둬 뜻깊다"며 "앞으로도 기존의 가전 광고 문법을 벗어난 낯선 시도를 통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나아가 업계나 학계에서도 두루 회자될 만한 새로운 캠페인들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현대百, 어린이 그림대회 수상작 39점 특별전 개최

현대백화점은 오는 22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스페이스원 3층 모카 라이브러리에서 '제41회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작 특별전'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현대백화점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는 1985년부터 40여 년간 이어 온 가족 문화행사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상상력과 창의성을 표현하며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매년 새로운 주제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 대회는 '내가 만난 예술'을 주제로 진행됐다. 어린이들은 전시와 공연, 문화유산, 자연, 일상 속 다양한 순간에서 발견한 예술의 감동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그림에 담아냈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회에 접수된 1만여 작품 중 현대백화점 사장상을 비롯해 현대어린이책미술관장상, 한국미술협회장상, 주요 대학 예술대학장상 등을 수상한 대표작 39점을 선보인다.

/김서현 기자 seoh@

현대차 정몽구 재단, '온소 클럽' 공개강연

시민 배움·소통 기회 확대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김경일 교수와 함께한 '온소 클럽' 첫 공개 강연을 계기로 시민과 배움·소통의 기회를 넓힌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지난달 30일 서울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김 교수를 초청해 '온소 클럽(ONSO CLUB)'의 첫 공개 강연 '나만의 답을 찾는 마음 트래킹'을 열었다고 밝혔다.

온소 클럽은 재단이 육성한 장학생과 창업가, 문화예술인 등이 분야를 넘어 교류하도록 올해 마련한 커뮤니티다. 재단의 지원이 끝난 뒤에도 경험을 나누고 협력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

김 교수는 동아시아와 서양 문화권의 사고방식과 관계 맺기 차이를 사례로 소개하며,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소통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질문을 나누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 능력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소클럽 강연 현장. /현대차 정몽구 재단

재단은 이달부터 인문학 독서와 AI 활용, 영화·클래식 음악 등을 주제로 전문가와 함께하는 소규모 모임을 운영한다. 온소 클럽 회원들의 교류를 지원하고 일부 전문가 강연은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할 계획이다.

/이승혁 기자sh95@

기정원, 인재개발 성과 산업부 장관 표창 수상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2026 대한민국생산성·지속가능경영혁신대상' 시상식에서 인재개발 부문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1일 기정원에 따르면 이번 '2026 대한민국생산성·지속가능경영혁신대상' 평가에서 AX 기반 혁신 추진, 생산성과 고객가치 중심의 경영체계 개선, 기관 전문성 강화,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 다양한 혁신 노력을 인정받았다.

김영신 기정원장(사진)은 "이번 수상은 중소기업 R&D 지원과 경영혁신을 위한 기정원의 노력을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의 미래를 이끄는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산성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새로운 우수성과를 창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대동, 트랙터·콤바인 '2026 KS-QEI' 1위

〈한국품질만족지수〉

대동의 트랙터와 콤바인이 '2026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농기계 부문에서 각각 1위에 올랐다.

1일 대동에 따르면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지수 평가에서 자사의 트랙터는 2021년부터 6년 연속, 콤바인은 2023년부터 4년 연속 1위에 각각 선정됐다.

농기계의 기본 성능과 신뢰성은 물론 고객이 체감하는 브랜드 이미지와 인지도까지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대동 최근영 커뮤니케이션본부장은 "트랙터 6년 연속, 콤바인 4년 연속 1위 선정은 대동의 품질 경쟁력을 고객과 시장으로부터 꾸준히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제품과 서비스에 적극 반영하고 검증된 품질 경쟁력에 AI와 자율작업 기술을 더해 고객이 체감하는 가치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부 음 ▲김관목씨 별세,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국회의원)씨 부친상 = 1일, 서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 303호, 발인 3일 오전 10시. 02-923-4442.

▲이영례씨 별세, 오기오 아내상, 오태석(우주항공청장)·상석·은정씨 모친상, 조경남·김은화 시모상, 고경석 장모상 = 1일, 전북 순창군 순창장례식장, 발인 3일 오전 8시40분. (063)653-6644

▲정규상씨 별세, 정연준(금호건설 재무본부 전무)씨 부친상 = 1일, 예산중앙장례식장 VIP실, 발인 3일 오전 9시. 041-331-4448.

▲정순자씨 별세, 임진택(유진그룹 커뮤니케이션실 상무보)씨 모친상 = 10월 31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일 오후 1시40분. 02-3010-2000


KWANGLIM
ARTS CENTER
JANGGCHEON HALL
Pianist 강충모
(북일1회)
Pianist 이혜진
(특별초청)
Trumpeter 유병엽
(북일5회)
Saxophonist 홍순달
(북일7회)
Cellist 유지연
(북일여고4회)
초대의 글
존경하는 복일 동문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올해 개교 50주년을 맞아, 지나온 반세기를
축하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개교 50주년 기념 송년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복일의 명예를 빛내주신 동문 여러분을
모시고 따뜻한 정을 나누며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모교의 더 큰 미래를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대 복일고재경총동문회장
황 규 하 올림
50년의 시간, 음악과 함께 하다
일시 : 2026년 12월 11일(금) 7:00~
장소 : 광림아트센터 장천홀
압구정로22길 21 (압구정역 4번출구)
주최 : 복일고 재경동문회
주관 : 사단법인 국제재즈교류협회
후관 : 복일고 총동문회, 복일여고 총동문회
사회자 : 편상옥 앵커(복일9회, SBS 보도분부 부국장)
이문정(복일여고2회, 전 MBC기상캐스터)
입장료 : 동문 사랑 후원 티켓 1인당 5만 원
※ 분 입장료는 복일동문의 발전과 풍성한 행사를 위해
전액 '동문 발전 후원금'으로 소중히 사용됩니다.

전세보증금 늑장 지급, 면책 한계는?



김 지 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사 일정부터 새집의 잔금 마련까지 차질이 생긴다. 이런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다. 그러나 보증기관의 지급마저 늦어진다면 임차인은 누구에게 지연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지급 청구를 받은 뒤 한 달이 지나 서류보완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청구일로부터 한달이 지난 후 실제 보증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다200365 판결).

이 사건 임차인들은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자 2024년 2월 2일 공사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는데, 공사는 청구일로부터 한달이 지난 3월 21일에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 이체확인증 등 서류의 보완을 요청했다. 임차인들은 당일 보완을 마쳤지만, 보증금은 4월 3일에야 지급되었다. 이에 임차인들은 공사를 상대로 청구일부터 한 달이 지난 3월 3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보증계약 약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주된 쟁점이 됐다. 약관은 원칙적으로 청구 접수일부터 한 달 안에 보증금을 지급하되, 서류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완완료일부터 한 달 안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사가 처음 한 달을 넘겨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도 지급기한을 다시 계산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약관은 일반적인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의미를 기준으로 목적과 전체 맥락을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뜻이 명확하지 않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약관을 작성한 사업자가 불명확한 조항을 이유로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이다.

대법원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줘 주거 이전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제도라는 점에 주목해 '약관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임차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공사는 보증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며, 서류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장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서류보완 요청을 늦게 할 경우 오히려 지연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신속한 보증금 반환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지급이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공사는 필요한 경우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권리관계, 점유상황, 임대인의 이의제기, 면책사유의 존부를 심사할 수 있고, 책임 없는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위 지급기한 이전에 그 사유를 알리고, 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증채무 이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처럼 지급기한 이전에 그 사유를 알리는 절차를 통해 공사는 지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임차인이 공사에 보증금 지급 청구를 한 경우 지급 청구와 서류 보완을 마친 날짜, 공사가 지연 사유를 알린 시점 및 그 내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무법인 바른

AI 강국의 청사진, 전력망은 따라오고 있나



기자 수첩
유 혜 온
〈산업부〉

경제학자 앨버트 허시먼은 저서 '경제발전의 전략'에서 특정 산업에 대한 투자가 다른 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불균형 성장론을 제시했다. 한 산업의 성장이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면서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투자가 실제로 이어지지 못하면 기반시설 부족이 오히려 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도 전력 공급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와 기업들이 첨단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송전망 구축이 제때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완공하더라도 필요한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면 정상적인 가동이 어렵다.

지난 28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도 송전망 건설 지연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준공해야 하는 345킬로볼트(kV) 송전망 사업 75건 가운데 53건이 지난 7월 기준 착공하지 못했다. 전체의 70.7%다.

공장과 전력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기간도 크게 다르다. 데이터센터는 입주사가 정해진 뒤 3~4년 안에 전력 공급이 필요하지만 345kV 송전선로 건설에는 평균 13년이 걸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하더라도 송전망이 제때 갖춰지지 않으면 전력 공급 시점을 맞추기 어렵다는 얘기다.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장 가동에 총 15기가와트(GW)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6GW, SK하이닉스는 6GW의 전력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 기존 전력망과 인근 발전시설을 활용한 단계별 공급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협약을 맺었다고 전기가 공급되는 것은 아니다. 공장 가동 시점에 맞춰 필요한 송전선로와 변전소가 완공돼야 한다.

송전망 건설을 무조건 서두를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에서는 주민 반대와 인허가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전기는 산업단지에서 사용하지만 송전탑과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부담은 다른 지역 주민들이 지게 된다.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에게 희생을 요구해서는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

허시먼이 설명한 산업 간 투자 효과가 나타나려면 반도체와 AI에 대한 투자가 전력 인프라 확충으로도 이어져야 한다.

정부는 송전망 사업별 착공·준공 일정을 점검하고 인허가 지연과 주민 갈등을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첨단산업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가동에 필요한 전력 공급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 AI 강국을 목표로 한다면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뿐 아니라 그 투자로 지은 시설을 언제부터 가동할 수 있을지 답해야 한다. /dhaledhale@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일 (음 9월 23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쥐 **48년생** 큰 소원도 능히 성취할 것입니다. **60년생** 시간을 낭비해선 안됩니다. **72년생** 좋다면 무조건 밀고 나가세요. **84년생** 여행도중 꿈속에 그리던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소 **49년생** 매사에 과감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61년생** 생각도 못했던 일로 즐거워집니다. **73년생** 외지로 나가지 마세요. **85년생** 이익도 없고 고생만 하게 되니 소원을 이루기 어렵겠습니다.

호랑이 **50년생** 마음의 안정을 취하세요. **62년생** 남과 다투지 마세요. **74년생** 과한 운동을 하면 몸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86년생** 모든 물건에는 각각 주인이 있으니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마세요.

토끼 **51년생** 노력하지 않으면 망신을 당할 것입니다. **63년생** 슬픈 일로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75년생** 바라는 꿈이 너무 허황된 것 같습니다. **87년생** 집안에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 **52년생** 독선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64년생** 서쪽으로 가면 길합니다. **76년생** 오늘은 웬만하면 길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88년생** 계획성 없이 일을 해 나가니 모든 것이 엉망입니다.

뱀 **53년생** 수렁에서 벗어나기 어렵겠습니다. **65년생** 사업을 확장하면 크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77년생** 병이 들면 위독한 상태까지 가게되니 주의하세요. **89년생** 이성과의 다툼이 있습니다.

말 **54년생** 당분간 여행은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66년생** 지금 계약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78년생** 자신의 의지를 확고히 다질 때입니다. **90년생**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양 **55년생** 단시일 내에 이루려는 꿈은 불길합니다. **67년생** 앞질러가려 하지말고 순리에 따르도록 하세요. **79년생** 애정운이 불길합니다. **91년생** 눈앞에 보이는 이윤에 뛰어들려 하지 마세요.

원숭이 **56년생** 천천히 단계를 밝아 올라가도록 하세요. **68년생** 친구에게 말조심하도록 하세요. **80년생** 가정에 경사가 있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92년생** 반드시 꿈이 이루어집니다.

닭 **57년생** 모든 일이 어려울 듯하면서도 좋은 방향으로 간다. **69년생** 목적 하는 것이 있다면 뜻대로 밀고 나가세요. **81년생** 정신적인 건강은 거의 함께 합니다. **93년생** 구설수를 조심하세요.

개 **58년생** 원하는 곳으로 떠나세요. **70년생** 만인이 공로를 치하하며 받들게 됩니다. **82년생** 사업이 번창하게 됩니다. **94년생** 포기하고 싶었던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빠르게 진척이 있습니다.

돼지 **59년생** 새로운 자세로 일에 임하게 됩니다. **71년생** 조급해 말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83년생**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95년생** 포기하지말고 끝까지 나가면 끝내는 이루게 될 것입니다.



김상회의 四季

제왕들의 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우스'라는 영화가 호머의 대서사시 오딧세이가 원작인데, 제작 당시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영화에는 인간들은 물론 헬레니즘문화에 빼놓을 수 없는 그리스·로마신화에 등장하는 많은 신과 요정도 등장한다. 지혜의 신 아테네는 신답지 않은 몹시 지치고 슬프며 인간보다도 더 나약해 보이는 모습이다. 그리스·로마신화는 제목 그대로 신들의 향연이 끝도 없이 펼쳐진다. 그 신들은 신들마다 저마다의 초능력을 펼치면서 인간이 지니는 오욕칠정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막장드라마를 펼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인간세계의 왕들은 각자 믿는 신들의 비호를 받고자 이리저리 난리다. 어찌 보면 신들의 대리전을 치르는 듯도 하고 신들의 노리개처럼 휘둘리고 내동댕이쳐진다. 때로는 신화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사실적이기도 하다.

이에 비해 클레오파트라는 BC 50년 즈음의 실존 인물이다. 클레오파트라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아름다움과 영리함을 겸비한 고대 이집트의 여왕이자 미인의 대명사이기도 한 그녀는 고대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로서 이집트가 로마제국에 병합되는 원인을 제공한 드라마틱하며 세기 사적인 인물이다. 클레오파트라가 통치하던 고대 이집트는 태양의 신 '라(Ra)'를 숭배하던 시절이었고 태양신 라의 딸이라 여겨지는 하토르여신은 사랑과 아름다움의 신으로도 알려져 있었다. 클레오파트라는 시저의 지원을 받아 하토르를 모시는 덴데라사원을 건축하였다고 한다. 같은 신을 숭배하여도 누군가는 신과 함께 하고 누군가는 응답을 받지 못한다. 옛날 군주들은 자신의 덕이 부족하여 하늘이 원을 저버린 것으로 이해했다. 신의 탓이 아니다. 받을 그릇이 부족하여 신의 부름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 한 힘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5	2		8				1
				7				
								6
	1	8	5					
	3						8	
					3	7	4	
5								
				5				
6				3		5	2	

			4			5	3	1
2	5							
							9	8
9			7					
			1		8			
					2			7
5	1							
							8	9
8	9	6			3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4	2	5	8	3	9	1	7	6
3	1	6	2	5	7	9	4	8
7	9	8	1	6	4	3	2	5
5	4	7	3	1	8	6	9	2
9	6	3	5	8	6	4	5	7
8	5	2	9	4	5	7	3	1
1	3	9	6	7	2	8	1	4
6	7	4	8	9	3	5	6	2
2	8	1	4	2	1	3	8	9

8	9	6	2	1	3	7	5	4
7	3	2	6	5	4	1	8	9
5	1	4	8	7	9	3	6	2
1	6	8	5	3	2	9	4	7
3	4	7	1	9	8	6	2	5
9	2	5	7	4	6	8	1	3
4	7	1	3	6	5	2	9	8
2	5	3	9	8	1	4	7	6
6	8	9	4	2	7	5	3	1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25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29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청약 미달’ 김포, 서울 대체지 될까… “보상·이주 병행해야”

아라지구에 3만7000가구 추가
최근 본청약·무순위 모두 ‘미달’
철도 연장사업도 후속절차 남아
보상·이주 동시 추진돼야 ‘속도’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주택 신속 공급방안(8.13대책)의 후속조치로 수도권(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신규택지 후보지 7.67만호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후보지 중 한 곳인 김포 아라지구 일대. /뉴시스

정부가 서울 인접 지역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지만 추가 물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김포가 서울의 대체 주거지로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근 대단지 아파트가 본청약에 이어 무순위 청약에서도 미달을 기록한 데다 서울 접근성을 높일 철도 연장사업도 후속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보상·이주와 지역 협의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경기 5개 시에 총 7만67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6곳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김포 아라지구는 3만7000가구로 추가 발표 물량의 약 48.2%를 차지한다. 고촌읍·사우동 일원 약 365만㎡에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한 입지에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등 주변 일자리를 연계해 주거·업무 생활권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인근에서는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인근 분양시장에서는 초기 수요 확보가 순탄하지만은 않아 서울 대체 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강시네폴리스에 들어서는 ‘한강 푸르지오 리버프론트’는 지난 8월 11~12일 진행한 1·2순위 청약에서 2030가구 모집에 총 1660건이 접수돼 합산 경쟁률 0.82대 1을 기록했다. 이후 9월 14일 잔여 물량 832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무순위 청약에서도 166건이 접수돼 경쟁률이 0.20대 1에 그쳤다.

인근 ‘오퍼스 한강 스위첸’은 사실상 분양을 마치는 데 약 6개월이 걸렸다. KCC건설 관계자는 “약 6개월에 걸쳐 분양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두 단지의 전용 84㎡ 최고 분양가는 한강 푸르지오 리버프론트가 7억7300만원, 오퍼스 한강 스위첸이 6억9300만원으로 8000만원 차이가 났다.

서울 접근성을 높일 철도 연장사업도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을 거쳐 김포까지 약 25.8㎞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공사 등을 거쳐야 한다.

현재 김포한강신도시와 김포공항역을 연결하는 김포골드라인은 열차 한 편성이 2량으로 구성된 경전철이다. 김포공항역에서 서울 지하철 5·9호선 등으로 갈아탈 수 있지만,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이어지고 있다.

수요 확보와 함께 공급 일정의 실현 가능성도 과제다. 정부는 이번 후보지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2030년까지 착공을 추진한다. 인허가와 보상·이주 절차를 앞당기거나 병행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실제 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토지보상과 주민·기업의 이주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사업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은 토지보상과 수용”이라며 “주민이 보상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주를 거부하면 필요한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인허가를 앞당기는 것만으로 전체 사업 기간을 줄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공급 속도를 높이려면 보상 못지않게 이주대책이 중요하다”며 “보상과 이주를 동시에 추진해야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과의 개발 방향 조율도 남아 있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지난달 29일 국토부의 신규택지 발표 이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 강행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대책과 자족기능 확보, 원주민 권익 보장 등을 촉구했다.

공급 계획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의 시차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교수는 중장기 공급 계획이 미래 공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당장의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주택 공급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꾸준한 공급 비전과 실행으로 공급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스마트홈 뚫렸다… 주거 서비스 보안 시급

GS건설, 입주민 개인정보 유출
건설사 역할, 주거서비스로 확대
지속적인 보안관리 역할 중요

GS건설의 입주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스마트 주거 시대에 보안 과제를 던졌다. 커뮤니티 시설 예약부터 출입, 가전 제어까지 주거서비스가 연결되면서 보호해야 할 정보와 시스템도 늘고 있다. 편의가 확대된 만큼 보안 투자와 입주 후 관리 체계를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29분께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예약관리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접근을 확인했다. 접속 기록을 분석한 결과 같은 날 오후 10시15분께 외부의 무단 접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 가능 정보에는 이름·전화번호·주소뿐 아니라 거주유형, 세대주 여부, RF카드번호 등이 포함됐다. RF카드번호는 시설 이용 등에 쓰이는 무선인식 카드의 식별번호다. 비밀번호도 포함됐지만 암호화된 상태라는 게 회사 설명이다.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은 수집 대상이 아니라 유출되지 않았다.

GS건설은 “조사를 마치면 정확한 유출 항목과 피해 여부 조회 방법을 안내하겠다”며 자이통합고객센터에서 피해구제 상담을 진행 중이다.

주택시장에서는 스마트홈과 커뮤니티 서비스를 아파트의 고급화·차별화 요소로 내세우면서 첨단 주거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GS건설의 ‘자이홈’은 난방·조명 제어와 엘리베이터 호출, 커뮤니티 예약 등을 제공한다. 현대건설도 ‘마이 힐스’와 ‘마이 디에이치’를 통해 스마트홈과 생활서비스를 통합했다.

문제는 여러 단지의 정보를 한 시스템에서 관리할 경우 사고가 났을 때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건설사의 역할이 단순 시공을 넘어 주거서비스로 확대된 만큼 보안관리도 이를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커졌다.

GS건설은 이상 접속을 감시하는 보안관제와 서버 접근제어 시스템을 운영한다. 삼성물산은 래미안·홈닉·Bynd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공개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직과 관리 절차 등을 심사받는 제도다.

현행 기준은 아파트 통신망 분리와 정기 안전진단 등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 보관과 접근 권한 등에 대해서도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앤트로픽의 AI 안전성 연구팀은 지난달 12일 스마트TV용 셋톱박스 15대를 연결해 AI를 나눠 실행한 연구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보안이 취약한 기기가 무단 점유되면 AI 실행과 확산의 거점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봤다. 여러 기기에 흩어져 작동하면 한 서버를 차단하는 방식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AI를 악용한 공격이 일상 공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보안 대응을 주거서비스 분야에서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채리 기자 cr56@

현대건설, 용산 한강로구역 재개발 수주

공동주택 456세대 등 조성

현대건설이 서울 용산구 한강로구역 재개발사업 시공권을 확보하며 서울 랜드마크 입지 공략에 속도를 낸다.

현대건설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한강로구역 재개발사업은 한강로1가 158번지 일대 4만 1744㎡ 규모의 정비구역에 지하 5층~지상 최고 36층, 공동주택 456세대와 오피스텔 125실, 업무·판매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대건설이 제안한 총공사비는 5990억원이다.

사업지는 지하철 4·6호선 환승역인 삼각지역과 인접해 서울 도심 및 용산 일대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안상미 기자 smahn1@

고덕강일3단지 등 4928가구 청약 접수

분양 캘린더

오는 3일,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
GTX 운정중앙역시티프라디움 진행

11월 첫째 주 서울 고덕강일3단지 등 수도권 주요 단지에서 청약 접수가 이어진다.

1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전국 5곳에서 4928가구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서울 강동구 강일동 일원에 들어서는 ‘고덕강일3단지’는 오는 4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급하는 단지로, 지하 2층~지상 29층, 17개 동, 전용면적 49~59㎡, 총 1305가구 규모다.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물량을 제외한 713가구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온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이다.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인천 계양신도시 AC3·4블록에 조성하는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는 오는 3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지하 2층~지상 15층, 16개 동, 전용면적 84~93㎡, 총 1110가구 규모다. 단지 앞에 유치원과 초·중학교 예정부지가 있으며, 문화공원인 ‘계양벼리’를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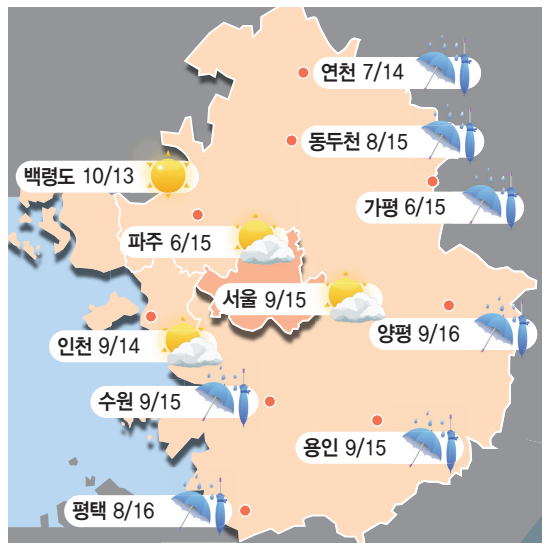
같은 날 경기 파주시 ‘GTX 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3·4BL’ 695가구, 화성시 ‘화성 향남 롯데캐슬 시그니처’ 1542가구, 인천 ‘청라 아크원 푸르지오’ 868가구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성채리 기자

오늘의 날씨 해뜸 / 06:58 | 해짐 / 17:33

11월 2일 (月)
음력 : 9월 23일

수도권 날씨 9~15℃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FBI, 美바이낸스 8조원대 해킹 배후 북한 지목…“추가 세탁 예상”
▲[美중간선거 D-1] 사전투표 5000만명 넘어섰다…역대 최다 /사진 뉴시스
▲트럼프 이란 재공격 위협…“표적 10분이면 처리 가능”
▲日 혼슈의 미에 현 남해안에서 규모 6.1 지진 발생
▲우크라- 튀르키예 정상회담, 흑해 곡물항로 유지· 강화 합의
▲美국무 “北과 대화 열려 있어…韓의원 비자는 수십년 전 관련”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6025호 2026년 11월 2일 월요일



신사업vs내실강화
K-뷰티 두 강자
사업전략 차별화
L1



유통가
서브컬처 행사
마니아 고객 확보
L2

“AI, 도구 넘어선 지성체… 역사의 변곡점서 인식 넓혀야”

새벽을 여는 사람들

법률사무소 ‘리바이어던’

임 현 서 대표변호사





▲임현서 변호사가 ‘30일 꽁짜 AI챌린지’의 홈페이지 화면을 살펴보고 있다.

◀AI를 향한 마음을 포즈로 표현해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임현서 변호사가 화답하고 있다. /김보민 기자

홈페이지 제작부터 소송업무 까지
AI 모델 활용해 업무 전반에 적용

AI 활용에 따라 경험의 격차 벌어져
빠른 발전속도 맞춰 직접 사용해봐야
새 기능 발굴하며 업무 아이디어 찾아

단순 기술 넘어선 지성… 신뢰도 높아
지성·논리 필요한 영역, AI 무대 될 것
AI 대한 인식 높이는 일 ‘시대적 사명’

임현서 변호사는 인터뷰 중에 인공지능(AI) 브라우저로 전자소송 문서를 불러와 검토·승인하는 과정을 보여줬다. 그는 “원래는 창을 띄우는 데만 20~30분이 걸렸다”고 부연했다.

AI는 그에게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도구가 아니다. 임 변호사는 “눈 뜰 때부터 자기 전까지 AI를 돌린다”고 말했다. 노트북과 휴대전화로 업무를 이어가며 AI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내에 정식 출시되지 않은 메타의 AI 에이전트 ‘뮤즈’도 이미 쓰고 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가 AI를 사용하는 것은 전자소송 업무에만 그치지 않는다. 법률사무소 리바이어던의 홈페이지도 AI를 활용해 만들었고, 사내 보고서 작성에도 AI를 쓴다. 홈페이지 제작과 보고서 작업처럼 직접 해보는 일이 늘면서 AI를 업무 전반에 적용하게 됐다.

서울대 경영대학을 졸업한 임현서 변호사는 AI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자동화하는 회사의 대표로 일하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변호사가 됐다. 로스쿨생들의 인턴 생활을 다룬 예능 프로그램 ‘굿피플’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고, 이후 ‘피의게임3’, ‘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 ‘더 로직’ 등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자작곡 ‘엄마 카드’를 불렀다. 지금도 유튜브 채널 ‘이면서다’를 운영하며 최근엔 AI 강의도 하고 있다.

그는 로펌에서 일하다 지난해 독립해 법률사무소 리바이어던을 설립하고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직원 1명으로 시작해 1년 만에 직원 30명 규모로 조직을 키웠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20억원이다.

◆“직접 써봐야 할 수 있는 일을 알게 된다”

임 변호사는 AI를 잘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경험의 격차가 크다고 봤다.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야 업무에 적용할 방법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진을 가지고 AI로 뭘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광학문자인식(OCR)이 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사진 속 글자를 읽어내는 기능처럼 일상적인 작업에 AI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을 아는지 모르는지에 따라 AI를 쓸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진다. 임 변호사는 “조금씩 알고 있는 것의 차이가 엄청 크다”며 지금을 “시대적 과도기”라고 표현했다.

AI에 어떤 일을 맡길 수 있는지, 나온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 판단하는 감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AI를 부려먹는 직관이 진짜 중요한 것 같다”며 “AI를 부려먹는 경험을 되게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데이터가 있는 곳에 AI를 연결하고, 결과를 확인하며 다음 작업을 이어가는 과정이 바로 AI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쓰다 보면 기능과 아이디어가 계속 떠올라”

임 변호사가 AI 활용에 관심을 갖게 된 데는 기술 발전을 직접 확인한 경험이 컸다. 올해 6월께 AI가 자신의 지성보다 나을 수 있겠다고 느꼈다. 그는 새 모델이 나올 때마다 코딩과 영상, 이미지 작업 등을 직접 시켜보며 변화를 살폈다. “6개월 전에는 제가 이 모델이 이 정도로 향상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다”며 “지금은 ‘그게 돼?’ 했던 게 다 되고 있다”고 전했다.

새 기능을 직접 시험해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인식 차이도 크다고 봤다. 대부분의 자기 업무와 생활이 있는 사람들은 새 모델이 나올 때마다 기능을 확인하기 어렵다. 모델의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직접 사용해보며 무엇이 달라졌는지 살펴야 한다고 임 변호사는 강조했다.

AI를 써보는 과정 자체도 그에게 원동력이 됐다. 새로운 기능을 발견하고 이를 업무에 적용하는 일이 재미있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AI가 새로운 걸 계속 하게 해주는 것들이 재밌어서 어디까지 되는지, 이용하다 보면 계속 기능을 발굴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변호사 업무도 처음부터 다시 살펴야”

AI의 발전은 임 변호사 자신의 변호사 업무에 대한 고민으로도 이어졌다. 임 변호사는 서면 작성 과정에서 AI가 내놓는 결과물을 보며,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쓸모에 대한 고민도 커진다고 했다. 서면 실력에 자신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이길 수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AI를 단순한 기술로 보지 않는다. “AI에 대해서는 기술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다. 지성이다”라며 “지성체로서, 인격체로서의 실체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사실 이미 지성의 단계에 올라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뢰의 방향도 AI 쪽으로 기울었다. 그는 “개별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떤 인간보다도 인공지능을 더 신뢰한다”며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도 그렇다. AI는 인지적 왜곡이나 개별적 편향으로부터 자유로워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AI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텍스트로 축적되지 않은 정보나 완전히 새로운 문제는 AI가 다루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공부를 해서 뭔가를 써야 한다고 하면 이제는 AI보다 더 잘 쓸 수가 없다”며 “특히 낯선 분야는 더 그렇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변호사 일을 계속하더라도 업무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기존 상식에 맞춰 일을 이어가기보다 AI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살피고 절차를 다시 짜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 일을 계속해서 할 거면 시대정신에 맞게 해야 된다. 지금까지 상식이라고 했던 것들을 다 해체하고, 업무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AI가 바꿀 관계와 사회 규범

임 변호사는 AI가 일하는 방식뿐 아니라,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이유와 사회의 규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과거에는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을 함께 해결하려 사람들이 모였고, 집단생활 속에서 규범과 윤리가 형성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AI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뭉칠 이유가 없어졌다”고 했다.

AI의 발전이 개인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윤리와 규범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AI 모델의 윤리적 편향에 대해서는 “지금은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도덕적인 편향이 있는 모델들만 보고 있는 것”이라며 “AI가 선을 넘지 못하는 애매한 영역은 사람이 맡고, 고도의 지성과 논리가 필요한 영역은 AI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임 변호사는 사람들의 AI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꼽았다.그는 “AI에 대한 인식(awareness)을 높이는 게 엄청 중요한 일이고,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제일 가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AI를 제대로 써보지 않은 사람은 그 위험성과 가능성에 아예 공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스레드·엑스·네이버 블로그)에도 AI 관련 소식을 올리고 있다.

임 변호사는 “지금이 인류 역사 중에서도 가장 역사적인 순간 중 하나”라며 “지금은 역사의 변곡점이 맞다”고 말했다.

/김보민 기자 kbm@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후라도 역투’ 삼성, KIA 꺾고 2년 만에 KS행… ‘맹타’ 김지찬, 5차전 MVP /사진 뉴시스

▲골대 때린 이강인 ‘평점 6.4점’…슈팅 2회·패스 성공률 91%

▲‘MLB 도전’ 노시환에 美 매체 “3루수 부족한 시장서 가치 높일 수도”

▲쇼트트랙 최민정, 새 시즌 월드투어 두 대회 연속 여자 1000m 정상

▲정지민, 월드클라이밍 군산 아시아 시리즈 스피드 우승…개인 첫 금메달

▲출판계에 닥친 AI발 위기…“산업 기반 무너뜨릴 수도”